



[전문가 증시 진단]
무역분쟁 약재
지수 하단 2250
저가매수 노력할 만
02



Economy

코스피 2272.76 (+1.22)	코스닥 795.71 (+5.89)
금리 (우대금) 2.14 (+0.02)	환율 (원/달러) 1118.70 (-1.30) (3일)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 주요 내용

세종 변동폭	과세표준	현행 (%)	권고안 (%)	인상분 (%)
주택	6억원 이하	0.5	0.5 (유지)	-
	6억원 초과 구간 세종 차등 인상	0.75	0.8	0.05
	0.5~2.0%	1.0	1.2	0.2
	⇒ 0.5~2.5%	1.5	1.8	0.3
종합합산 토지	15억원 이하	0.75	1.0	0.25
	15~45억원	1.5	2.0	0.5
	45억원 초과	2.0	3.0	1.0
별도합산 토지	200억원 이하	0.5	0.7	-
	200~400억원	0.6	0.8	0.2%p 인상
	400억원 초과	0.7	0.9	-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공시가·세율 동시인상 35만명 1.1% 더 낸다

중부세 인상 최종 권고안

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중부세)를 손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올린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高價) 부동산의 과세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분야 권고안에는 ▲중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시장의 이목이 쏠렸던 중부세 개편안은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센 방안으로 확정됐다.

중부세는 과세표준에 0.5~2.0%의 세율을 곱해 매겨진다. 과표는 시세의 60~70%인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다주택자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특위는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인상을 함께 권고했다. 주택의 경우 과표 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현행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0.8%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1.2%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1.8% ▲94억원 초과 2.0%→2.5% 인상을 제안했다.

토지 세율은 종합합산분은 과표 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은 전과표구간에서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린다.

특위는 이번 중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라고 예상했다.

예상 세수효과는 연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주택 900억원, 종합 5500억원, 별도 45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중부세 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전망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한노총 복귀 최저임금위, 심의 돌입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노총의 참석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의 의견을 각각 수렴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날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제외한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의

복귀로 최저임금위는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틀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만큼이나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달 14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노동부는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무분별 구속·압수수색에 기업만 멍든다

여론몰이 따라가다 檢신뢰 추락

흔들리는 검찰권위

(中) 구속영장 기각률 20%

검경의 잦은 재계 압수수색 기업 업무마비에 생산성 폭법원에선 영장기각 잇따라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으로 기업의 업무마비돼 '엄정한 잣대'가 요원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속요건 보다는 여론의 관심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보니, 법원의 영장 기각이 이어지면서 검경의 '수사편의주의'만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수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허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달 4일 기각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실 여론몰이 수사가 많다"며 "이씨의 갑질을 시골 갑부가 똑같이 했다면, 누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구속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비

난 받아 마땅한 일과 구속수사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벌 봐주기' 소리를 듣기 싫은 검찰이 법원에 신병 처리를 떠넘기다 보니, 구속영장 기각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반복되는 영장기각 20% 육박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기각률은 높은 편이다.

3일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19%(청구 3만5102건·기각 6682건)에 이른다. 2015년~2017년 3년간의 기각률 역시 18.2%(청구 11만3555건·기각 2만706건)로 비슷했다. 다섯 번 중 한

번 꼴로 영장이 기각되는 셈이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기각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 법원행정처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발부된 압수수색영장만 16만8290건에 이른다. 반면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은 10.74%(청구인원 18만8560건·기각인원 2만270건)에 머물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의혹이 일어날 때마다 전면적으로 벌어지는 압수수색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순간, 업무가 마비되고 회사의 평판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과 검경, 국제청의 잦은 압수수색으로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기업에 손실이 된다"며 "특히 압수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긴 데다,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3·1 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첫 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내빈들과 대장정의 출발을 알리는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주회사, 내부거래비중 55%... 제도개선 나선다

공정위, SK·LG 등 18곳 분석 손자·증손회사 지분 늘려 총수익이 지배력 급격 확대

대기업 지주회사가 배당보다는 브랜드 수수료나 부동산 임대료 등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지주회사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999년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주회사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환집단 지주회사(지주회사·소속회사 자산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 18곳을 분석했다.

18곳은 SK·LG·GS·한진칼(이하 한진)·CJ·부영·LS·제일홀딩스(하림)·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국타이어)·동원엔터프라이즈(동원)·한라홀딩스(한라)·세아홀딩스(세아)·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퍼시픽)·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중공업)·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한솔홀딩스(한솔) 등이다.

통상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하지만 18개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반대로 배당의(외)수익의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을 앞질렀다. 브랜드수수료(간판값),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이 더 큰 돈줄이었던 셈이다.

셀트리온의 매출은 100% 배당외 수익이었다. 한국타이어(84.7%), 한솔(78.8%), 코오롱(74.7%)의 배당외수익 비중도

70% 이상이였다.

지주회사 출자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한 형태가 관찰됐다. 지주회사 평균 소속회사 수는 2006년 15.8개였지만, 2015년은 29.5개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자회사 수는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손자 회사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했다는 의미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5G구축 다 돼가는데... '단말기' 개발 재촉하는 이통사

(네트워크)

5G 넥스트 스텝

<中> 5G 인프라 구축, 그 이후엔?

'5G 네트워크 구축을 해도 단말이 없으면 5G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5G시대를 맞아 직접적인 수요를 창출할 단말기 개발도 좀 더 빨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G 상용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잡은 이유도 5G를 지원하는 단말기와 칩셋이 나오는 시점이 빨라야 내년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수조원을 들여 5G 통신망 구축에 나서도 대중들이 서비스를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5G 장비·기지국과 통신을 주고받는 스마트폰이 나와야 한다.

◆5G 국제 표준 가닥... '망 보안'과 '안정성' 기술 개발도 '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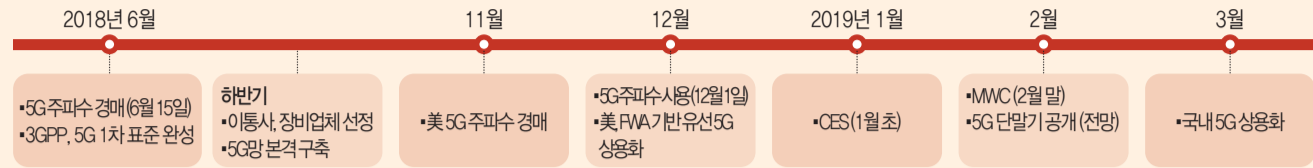
3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5G는 2035년까지 12조3000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 연계 시장에서도 3조5000억달러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한 5G 국제 표준도 가닥을 잡았다. 이동통신 표준화국제협력기구(3GPP)는 지난달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무선총회에서 단독장비만으로 5G 서비스가 가능한 SA 규격을 공개해 1차 표준을 완성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도 총회에 참석해 5G 표준 완성에 힘을 보탰다. 양사는 이와 함께 미국 AT&T를 포함해 일본 NTT도코모 등 12개 통신사가 모인 글로벌 5G 통신사연합체인 'O-RAN(Open Radio Access Network) 얼라이언스'에 이사회 멤버로 참여한다.

이날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국제 5G 표준에 부합하는 '5G 전용 교환기' 개발에 성공했다. 5G 전용 교환기는 5G 기지국과 인터넷 서버 사이에서 무선 데이터를 나르는 역할을 한다.

5G 상용화 일정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 5개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 추이

순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노키아 43.7%	노키아 41.1%	노키아 34.2%	애플 18.9%	삼성전자 30.3%	삼성전자 31.0%	삼성전자 24.5%	삼성전자 22.8%	삼성전자 20.5%
2	블랙베리 16.6%	블랙베리 19.9%	블랙베리 16.6%	삼성전자 18.7%	애플 19.1%	애플 15.6%	애플 14.8%	애플 16.2%	애플 14.4%
3	애플 8.2%	애플 14.4%	애플 15.6%	노키아 17.9%	노키아 43.7%	화웨이 4.8%	레노버 7.2%	화웨이 7.4%	화웨이 8.9%
4	HTC 4.7%	HTC 6.3%	삼성전자 8.5%	블랙베리 10.9%	블랙베리 43.7%	LG전자 4.8%	화웨이 5.7%	레노버 5.2%	OPPO 5.7%
5	삼성전자 3.4%	삼성전자 3.4%	HTC 8.2%	HTC 9.1%	HTC 4.7%	ZTE 3.9%	LG전자 4.6%	샤오미 4.9%	Vivo 4.8%

자료/ Gartner,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

이 같이 5G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하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차세대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5G 망을 통해 자율주행이나 바이오·생체 정보 등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외부 해킹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 '망 보안'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것.

SK텔레콤과 KT는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기술로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양자암호통신' 연구에 뛰어들어 상용화를 코앞에 뒀다.

◆5G폰 내년 상반기 나올까?... '중기' 대응해야

문제는 스마트폰 등의 단말이다. 업계에서는 5G 스마트폰이 내년 2·4분기 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상승하고, 교체주기가 길어져 수요 정체에 빠진 스마트폰 시장도 5G 단말이 등장하면 내년부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지난해 1%대 성장에 그친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내년에는 3.5%, 2020년 4.4%, 2021년 4.9%, 2022년 5.6% 등으로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예상 성장률은 4.1%로, 출하량은 18억6040만

SK텔레콤, 5G 전용 교환기 개발 칩셋 등 폰 핵심부품 개발 더더 내년 상반기 단말기 출시 미지수 화웨이 등 중 업체도 발벗고 나서

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5G 디바이스 기술요구서를 디바이스 제조사인 삼성·LG전자에 배포했다. 5G 디바이스 기술요구서는 LG유플러스 통신망에서 단말을 사용함에 있어 최적화된 규격과 품질 기준 내용이 기술된 요구서다. LG유플러

스는 디바이스 검수 기준을 마련하는 품질검증 표준화 국제기구인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에 검수 기준 기고를 통해 단말 제조사가 원활히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5G용 태블릿 단말을 선보인 바 있다. 다만, 스마트폰 칩셋 등 핵심 부품이 출시되는 시점이 미지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단말 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기회를 잡기 위한 중국의 굴기도 무섭다. 중국 통신장비 화웨이는 내년 9월 5G 스마트폰을 출시해 단말기 분야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 퀄컴의 스티브 몰렌코프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5G 시대가 개막되면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의 정상권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롯데, 지배구조개편 급물살

롯데정보통신 이달 말 상장 추진 경영 효율성 위해 사장단 회의 변경



롯데그룹 로고.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낸다. 또 경영 현안을 점검하는 사장단 회의도 11년만에 대폭 개편한다.

◆경영 투명성위해 상장 추진

3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의 정보기술(IT) 전문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달 중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공모가 확정, 청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상장할 예정이다. 이는 롯데지주가 출범한 이후 첫 기업공개(IPO)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이번 상장을 통해 IT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해외사업 강화, 우수 솔루션 발굴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IT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1996년 설립된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매출 6913억원, 영업이익 327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롯데지주가 롯데정보통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사장단회의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

롯데그룹 경영 현안을 점검하는 사장단 회의도 5개 주요 사업부문(BU)이 각각 하루씩 총 5일간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회의방식도 비슷한 업종의 계열사 대표들이 현안과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말 그대로 회의로 진행되는 것이다.

롯데제과·칠성음료·푸드 등 15개 식품 계열사(4일)를 시작으로 롯데백화점·마트 등 유통 계열사(5일)와 롯데케미칼 등 화학 계열사(6일)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호텔·서비스(11일), 금융 계열사(12일) 회의도 이어진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올해 롯데의 비전이 바뀌면서 바뀐 비전에 맞는 사장단회의 개편을 생각해왔다"며 "신 회장 부재와 상관없이 비전에 맞춰 회의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날

시원하게 즐기는 여름으로 당신의 보통날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travelweek.visitkorea.or.kr



“석빙고에서 힌트 얻은 ‘복사냉방’ 무풍에어컨으로 구현”

삼성전자 기자간담회

바람 없이 시원한 이상적 냉방 발원

“바람에 의한 불쾌감 없이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복사 냉방이 구현된 석빙고에서 무풍에어컨의 개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서형준 삼성전자 소비자전부문 마스터(에어컨 개발 담당)는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에어컨이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용량이 커지고 다양한 형태로 개발됐을 뿐, 혁신적인 기술 개발은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던 중 자연에서 이상적인 냉방방식을 발견했다”며 무풍에어컨의 개발 배경을 밝혔다.

무풍에어컨에 대한 고민은 소비자가 시원함을 원하지만 찬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꺼린다는 아이러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지난 1월 출시한 2018년형 ‘무풍에어컨’.

/삼성전자

실제로 일반 에어컨을 이용할 때 잠시 간 차가운 바람에 노출된 사용자는 불쾌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조절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무풍에어컨은 이런 불편함을 없앴다.

석빙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개발진은 2011년 벽면 에어컨으로 냉기 제로화를 실현한 후 4년간 연구를 거듭했고 2015년 간접풍과 직접풍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유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다. 이 기술을 통해 냉방 초기에는 회오리 강력 냉방으로 온도를 차게 하고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무풍 냉방으로 전환된다.

또한 무풍에어컨은 고효율 압축기를 적용한 초절전 인버터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며 전기료도 낮춘다. 서 마스터는 “10년 전 정속형 에어컨의 전기료가 8만5000원이었다면 현재 무풍에어컨의 전기료는 3만40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무풍 스탠드형 에어컨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자 무풍 기술을 벽걸이형과 천장형 등 제품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 1월 출시한 2018년형 무풍에어컨은 스스로 학습하고 작동하는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에어컨의 온도조절은 물론 이용자가 집 근처에 오면 에어컨을 켜도록 할 수도 있다.

또 무풍 지능 냉방으로 24시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한다.

‘무풍 지능청정’은 실내 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 감지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자동으로 청정 운전을 하며 에어컨이 꺼져있을 때에도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로 실내 미세먼지 정도를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기 때문에 클릭 한번으로 청정 모드 작동이 가능하다.

빅스비 음성인식을 통한 조절도 가능하다. 이용자가 “하이 빅스비, 오전 10시에 에어컨 끄다가 오후 12시에 다시 켜줘”라고 말하면 빅스비가 이를 인식해 에어컨을 조절한다. 학습을 통해 음성인식률은 높아졌다.

AI는 고장도 사전에 예측해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경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프로(상품기획담당)는 “인공지능이 주마다 알아서 에어컨을 점검해 주기 상태, 필터 상태, 전력 사용량 등을 알려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페이 생일케이크 함께 나눠요”

LG전자, 1주년 고객감사 이벤트

LG전자의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LG 페이가 서비스 시작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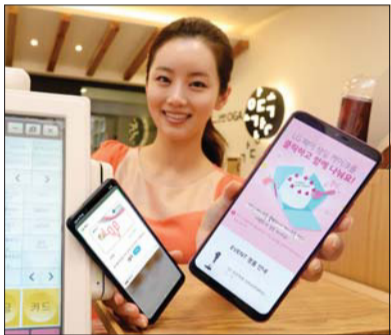
LG전자는 오는 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LG 페이 1주년 생일 케이크 함께 나눠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 응모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LG 코드제로 A9 1대, LG 프라임 클렌저 12대, 파리아게트 5000원 상품권 365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500잔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응모를 원하는 이용자는 이벤트 기간 중에 LG 페이 앱의 생일 케이크 모양 터치하면 응모 페이지로 연결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이벤트를 공유하거나 이벤트 기간에 LG 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응모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LG 페이는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전방위로 진화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 나간다.

LG전자는 하반기에 카카오페이 체크카드의 오프라인 결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용카드도 늘린다. 체크카드처럼



LG전자의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LG 페이가 서비스 시작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전자

사용할 수 있는 ATM 기능도 현재 신한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LG 페이를 지원하는 기기도 많아졌다. LG전자는 올해 이미 출시한 LG X4, LG X4+ 등 실속형 제품군을 비롯해 알뜰폰을 제외한 올해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LG 페이를 탑재한다.

사용 방법은 더욱 간편해졌다. 음성 비서인 ‘Q보이스’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LG 페이로 결제해줘”라고 말하면 앱을 터치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사용내역 확인, 은행 계좌 잔고 확인 등도 음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세윤 기자

LG디스플레이, 조명 안전규격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가 OLED 조명에 대한 안전규격 인증을 획득하고 OLED 조명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LG디스플레이는 세계적 시험인증기관인 TÜV SUD로부터 OLED 조명 안전규격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가 획득한 이번 OLED 조명 안전규격 시험소 인증은 제조사 시험소 중 세계 최초다. LG디스플레이의 안전 검증 기술력과 자체 시험소의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LG측은 설명했다.

안전규격 시험소 인증에 필요한 테스트



3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왼쪽부터)배종욱 기초기술연구팀장이 TÜV SUD코리아 제품인증사업부 총괄전무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있다. /LG디스플레이

트는 내부단락 회로 테스트와 결합 조건 테스트, 열 응력 테스트 등 총 1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SKT, 삼성전자와 ‘5G 전용 교환기’ 개발

초고속·초저지연 전송 성능 향상 동적 분산 접속·지능형 관리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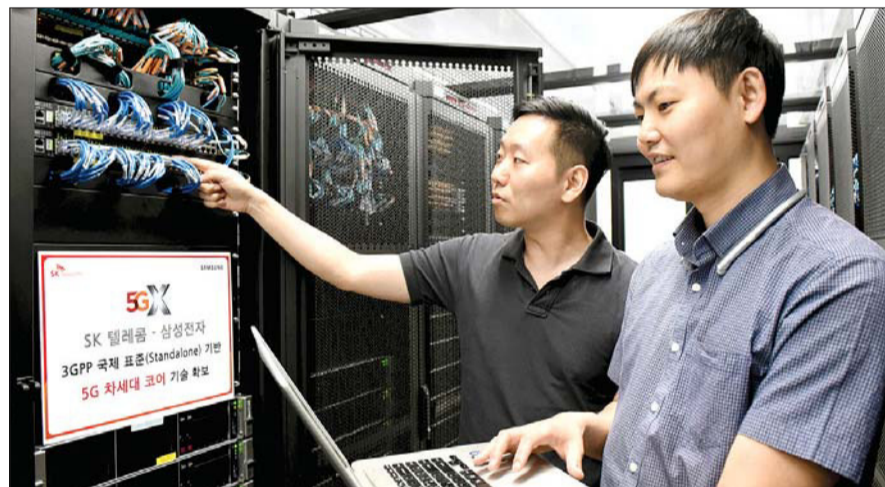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국제 5G 표준에 부합하는 ‘5G 전용 교환기(5G NextGen Core)’ 개발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5G전용 교환기는 5G기지국과 인터넷 서버 사이에서 무선 데이터를 나르는 역할을 한다. 이 교환기는 통탐에볼루션(LTE) 교환기에서 구현이 어려웠던 다양한 기술을 탑재해 초고속·초저지연 데이터 전송에서 향상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이 교환기는 콘텐츠별 전송 방식을 특성에 맞게 처리해 인터넷 서버로 전달한다. 보안이 중요한 금융, 생체정보 데이터는 양자 암호를 더하는 통로로 전송한다. 빠른 전송을 요하는 초고화질 영상이나 지연시간이 극도로 짧아야 하는 원격 진료 데이터 등은 전송 가속기를 거쳐 간다.

아울러 양사는 5G전용 교환기 제어 영역에 독자 규격이 아닌 웹 트래픽 전송에 범용으로 쓰이는 HTTP 국제 규격을 적용했다.

개발사·스타트업은 HTTP기반으로 보다 쉽게 5G 신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 서비스 회사는 5G교환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2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5G연구소에서 5G 전용 교환기의 기술과 장비 성능을 시험해보고 있다.

/SK텔레콤

기로부터 네트워크 속도·배터리 상태 등을 전달 받아 동영상 스트리밍 품질을 조정할 수 있다. 독자 규격을 사용하는 기존 교환기는 네트워크 속도 등 정보를 외부 회사에 전달하기 어려웠다.

5G전용 교환기에는 고객 단말기부터 인터넷 서버까지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동적 분산 접속 기술’이 적용됐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복구하는 지능형 관리 기술도 탑재됐다.

SK텔레콤은 올해 1월 5G 전용 교환기의 기반 기술, 구조도 등을 AT&T, 도이치 텔레콤 등과 협업해 백서로 만들고, 외

부에 공개했다. 또 삼성전자와 함께 표준화 단체 3GPP에 30건 이상 관련 기고를 제출하며, 국제 표준 기술에 반영했다.

SK텔레콤은 국제 표준 반영·시연 성공에 이어 상용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5G 단독망 상용 장비는 내년엔 현장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SK텔레콤 박진호 ICT기술원장은 “수년 전부터 준비한 5G 기반 기술과 장비들이 단계별로 완성되고 있다”며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듯 5G네트워크도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한층 한층 심혈을 기울여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경제력·편의성 뛰어난 ‘삼성 잉크젯 플러스’

삼성, 정품 무한 잉크젯 복합기 출시

삼성전자가 정품 무한 잉크젯 복합기 ‘삼성 잉크젯 플러스’를 3일 출시했다.

경제성은 물론 사용 편의성과 인쇄 보존력까지 갖췄다. 삼성 잉크젯 플러스는 삼성 잉크젯 복합기로는 처음으로 카트리지가 교체 아닌 정품 잉크만 구입해 보충하는 방식의 잉크젯 프린터다.

대용량 잉크통을 탑재해 출력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장당 출력 비용이 흑백은 약 1.8원, 3색 컬러가 약 1.3원이다.

또한 흑백은 최대 6000매, 컬러는 최대 8000매까지 출력이 가능해 출력물 활용이 많은 소규모 사무실이나 유치원·학원



삼성전자가 정품 무한 잉크젯 복합기 ‘삼성 잉크젯 플러스’를 3일 출시했다.

/삼성전자

등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투명한 소재의 대용량 잉크통은 잉크 잔량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본체에 노즐을 꽂아야만 잉크가 주입

되는 ‘투명 잉크샘 방지 노즐’이 있어 충전 시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다.

삼성 잉크젯 플러스는 인쇄보존력도 뛰어나 일반용지 인쇄 시 최대 25년, 사진용지는 최대 75년간 보존 가능해 장기 보관이 필요한 자료나 사진 출력에 유용하다.

삼성 잉크젯 플러스는 일반 모델·무선 출력 모델 각 1종씩 총 2종으로 출시됐으며 출고가는 일반 모델 21만9000원, 무선 출력 모델 24만9000원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잉크젯 플러스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에서 삼성 잉크젯 플러스 쿼츠에 응모한 선착순 5000명과 제품 구매 후 시리얼 넘버를 인증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한 제품 구매 고객 모두에게 A4용지 500매를 제공한다. /구세윤 기자

파업 깃발에 휘청이는 車·조선업... 韓 경제 '사면초가'

현대자동차 지난해 노조파업으로 영업손실 등 생산 차질규모 1조원 미국發 '관세폭탄' 우려에 '주름살' '일감부족' 현대중, 파업리스크까지

국내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조선 등이 내외환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현상을 겪고 있다. 조선업계도 노조 파업에 따른 수주 기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7년 연속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자 4만4782명 중 65.62%(3만308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언제든 파업을 벌일 수 있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 맞춰 오는 13일



현대차 노조가 2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임협 교섭 결렬에 따라 실시된 조합원 파업투표의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6시간 파업을 확정해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개월간 진행된 12차례 교섭에서 이견 차이만 확인했다. 사측은 그동안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급승급분 포함)에 성과급 200%+100만원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

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주장했다. 노사는 8월 초 여름휴가 이전에 교섭을 마치자는 입장이지만 광주시가 제안하고 현대차가 참여의향을 제출한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 위험은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현대차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노사간 입장차를 쉽게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의 경우 법정관리 위기 등으로 인해 노사가 지난 4월 올해 임단협을 타결시켰고, 금속노조 소속이 아닌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는 노사간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수주 절벽'에 직면한 조선업계도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2일과 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4월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찬성 결과를 받아들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4일 현대중공업 지부 앞 광장에서 다시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총파업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노조가 중노위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판결을 받게 되면 파업 등 쟁의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을 통해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 ▲성과급 250%+알파 지급 ▲하청노동자에 정규직과 동일

한 휴가비·자녀 학자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 실적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본급 동결과 함께 경영 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할 두 회사의 영업손실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내수 시장에서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형 싼타페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감가뭄으로 위기를 맞은 현대중공업은 파업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파업으로 인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한 선사들이 현대중공업에 선박을 발주하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으며 현대중공업도 파업으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았다"며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에 나서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근 기자 ysw@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2차 협력사와도 '상생 강화'

'반도체 상생 CEO 세미나' 개최 경영 역량 향상·소통 강화 목적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상생 CEO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2차 협력사 CEO의 경영역량 향상과 국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CEO세미나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5회 열린다. 경영·경제·인문 분야와 반도체 기술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세미나에는 SK하이닉스와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협력사 CEO를 비롯해 ▲SKC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SKC솔믹스 등 그룹 내 반도체 관계사의 1차 협력사 CEO 등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랜드워커히 서울 호텔에서 열린 첫 세미나에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가 반도체 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고려대 김태규 교수가 가



3일 열린 SK하이닉스 2018 반도체 상생 CEO 세미나에서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첫째 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치 창조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SK하이닉스 박성욱 부회장은 "우리가 함께 거둔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SK하이닉스는 2·3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유인프라 포털을 활용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경영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3차 협력사 전용 600억 원을 포함한 총 4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와 상생결제 시스템도 운영하는 중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중고물품 기부로 환경·일자리 '두토끼'

SK이노베이션 "사회적 가치 창출"

SK이노베이션이 중고 회사 물품을 사회적기업에 기부, 리사이클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 본사에서 '2018년 SK이노베이션 사회적기업 후원 PC 기증식'을 열고 중고 사무용 전자제품(OA) 총 1315대를 사회적기업인 '행복ICT'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유해진 IT전략·지원실장과 행복 ICT 김준범 대표가 참석했다. '행복ICT'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하고 한국 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지정한 사회적기업이다. 지난 2011년 SK C&C와 SK텔레콤이 함께 설립, 취약계층을 위해 ICT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기증된 장비는 포천의 행복ICT 리사이클링 공장에 입고, 상품화가 가능한 상태로 탈바꿈된다. 데스크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SK이노베이션 사회적기업 후원 PC 기증식'을 열고 총 1315대, 6000만 원 상당의 중고 사무용 전자제품을 사회적기업인 '행복ICT'에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

탑 474대, 노트북 367대, 프린터 187대 등 약 6000만원 상당의 규모다. 리사이클링을 과정을 통해 전자제품 사용연한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폐기물을 줄이고 상품화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장애인 일자리와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수익금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사업에 활용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가스공, 호주 우드사이드와 수소기술 MOU

천연·석탄가스 이용한 수소생산 등 한국가스공사는 세계가스업계 최대행사인 'WGC 2018' 기간중 우드사이드사와 '수소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우드사이드사는 호주 퍼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상류부문 자원개발, LNG·Oil 생산, 시추탐사를 하는 다국적 메이저 기업이다. 1954년 설립했고 임직원수는 현재 약 3500명이다. 앞서 양사는 R&D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과 가스산업 전 분야의 포괄적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인적교류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우드사이드 측은 상류분야 및 액화분야, 가스공사측은 생산기지 운영 및 LNG 수송분야에 대해 상호 OJT 교육을 시행중이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미래의 주 에너지가 될 수소 산업분야에 대해 양사 간 심도 있는 협력을 하기 위함이다. ▲천연가스, 석탄가스등을 이용한 수소생산 ▲수소생산, 운송 및 최종사용에 대한 절차 ▲수소저장·이송방법 등이 골자다. 한편 가스공사는 에너지 전환에 대비한 기초 및 실용연구와 국내·외 수소관련



한국가스공사가 다국적 메이저 기업 Woodside사와 '수소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

단체에 가입·활동하고 있다. 정부계획에 맞춰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중전소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LS전선 서호주 전력청 우선 공급자 계약

5년간 전력케이블 60% 공급

LS전선은 서호주 전력청으로부터 5년간 우선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LS전선은 2023년 6월까지 서호주 전력청이 발주하는 중·저전압(MV·LV) 케이블의 약 60%를 공급하게 된다. 최근 호주는 자원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전력 케이블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전선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한 추세다. LS전선은 베트남 생산법인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이번 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전선업종은 구리 등의 원가 비중이 높고 이익률이 크지 않아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선업체들은 로컬 업체들을 인수하거나 신규 공장 건설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거점 별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현재 점유율이 5% 미만인 호주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S전선은 최근 미국, 미얀마, 프랑스,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年 1兆 이익 목표... 글로벌 경제협력은행 도약”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비전2030’

IKCF 관련 조직 정비·인력 보강
대북경제협력의 새 토대 쌓을 것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3일 “오는 2030년 200조원 수준의 여신잔액을 바탕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의 이익을 창출하는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IKCF)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살려 대북 경제협력과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은행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은행장은 “그동안 추가 부실 방지와 새

신을 위한 자구노력에 맞춰져 있던 은행의 경영목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향후 수출금융·대외경제협력기금(EDCF)·남북협력기금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제협력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IKCF와 관련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은행장은 “그동안 IKCF 수탁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대북 경제협력 경험과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북경제 협력의 새 토대를 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북 경제협력과 개발 비용을 IKCF가 모두 감당하기 보다 국제

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전이라도 팔레스타인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신탁기금(트러스트 펀드) 등을 만들어 초창기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2020년 말까지 이행할 예정이던 혁신안은 올해 말까지 사실상 완료할 방침이다.

수은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 등 주요 산업의 업황 부진이 건전성 저하로 이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장은 “금융·경상·경비·예산부문의 삭감을 충실히 실천하는 등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했다”며 “조직부문은 2016년 말 1개 본부를 축소하는데 이어 올해 말 1개 본부를 추가

로 축소할 예정이고, 3개 출장소와 1개 지점을 폐쇄해 조직을 더욱 슬림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특정기업·계열 앞과 다져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각각 60%, 80%였던 자기 자본대비 동일인·동일차주 여신한도는 40%, 50%로 줄어든다.

앞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여신부서-심사평가단-여신감리실로 이어지는 ‘신용평가 3심제’를 도입해 부실여신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는 한 명 감축하고, 비상임이사 한 명을 늘려 내부 인사만으론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없도록 구조화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3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발전방향인 ‘비전2030’을 설명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손흥민’ 카카오 이모티콘 출시

KEB하나은행은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만든 카카오 이모티콘 16종을 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손흥민 이모티콘’은 러시아 월드컵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그 감동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출시하게 됐다.

KEB하나은행의 광고모델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카카오 이모티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 표현들을 손흥민 선수의 다양한 표정으로 재치있고 친근하게 표현한 움직이는 스티커 형태로 제작됐다.

‘손흥민 이모티콘’은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KEB하나은행의 ‘오! 필승코리아 적금 2018’을 신규로 가입하면 선착순 3천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금융권 대표 멤버십으로 자리 잡은 ‘하나 멤버스’와 KEB하나은행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축구 발전과 프로축구 K리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오! 필승코리아 적금 2018’은 월 1만원 이상 3백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며 최대 연 2.4%의 금리를 제공한다. ‘손흥민 이모티콘’ 이벤트와는 별도로 오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하면 K리그 일반석 입장권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kmh@

두달 연속 금리상승... 대출연체율 ‘최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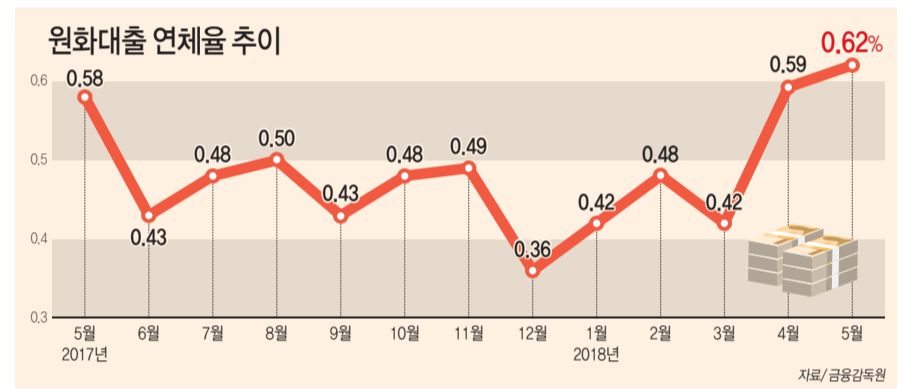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전월 말 대비 0.03%p 상승

금리상승에 대출연체율이 두달 연속으로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2%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04%포인트 높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4000억원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 8000억원을 웃돌았다.

연체율은 4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2016년 11월 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91%로 전월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1.81%, 중소기업대출 0.69%로 각각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씩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오른 0.28%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50%로 0.

0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왼쪽부터)김건영 NH저축은행 대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 농협금융 본사에서 경영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NH저축은행·NH농협리츠운용

김광수 회장, 자회사 대표와 경영협약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일 김광수 회장이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지난달 선임된 NH저축은행 김건영 대표이사와의 이번달 업무 개시하는 NH농협리츠운용 서철수 대표이사와의 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경영협약식에서 김 대표에게 “취임 초기 조직 안정화를 통해 사업추진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경영체질 개선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서 대표에게는 “조기 사업정착을 통

해 농협금융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회사에 경영체질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우량여신 확보,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젊은 고객층 유치, 내부 인재 양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NH농협리츠운용은 범농협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열 시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앞으로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카뱅 보증금대출 한도 다방앱서도 조회 가능

카카오뱅크는 부동산 플랫폼 ‘다방’과 손잡고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예상 한도를 다방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다방 앱 사용자들은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면서 주거 희망 지역, 보증금, 간략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면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예상 한도를 알아볼 수 있다. 실제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와 금리는 개인신용정보 확인이 필요해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해야 한다.

이형주 카카오뱅크 상품파트장은 “다방 앱을 통해서도 카카오뱅크의 간편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전한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대출처와 상품 선택의 폭을 더 넓게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와 다방은 이번 대출 한도 조회 서비스를 시작으로 상시 서비스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방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매일 100명을 추첨해 카카오 이모티콘을 무료로 증정한다. /안상미 기자

KB금융그룹 은행·증권 복합점포 ‘57호’ 오픈

KB금융그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테캐이타워에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KB 골드앤와이즈(GOLD&WISE) 여의도 종합금융센터’를 신규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를 총 57개로 확대했다.

이번 복합점포 오픈으로 KB금융은 올해 7개의 복합점포를 추가했으며, 하반기에도 권역별, 지방 대도시 중심의 복합점포 확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복합점포에서는 고객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되어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PB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의 우수PB가 하나의 팀이 되어 다양한 은행·증권의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세무 컨설팅, 해외주식 세미나 등 고객의 필요에 맞는 자문컨설팅도 제공하게 된다.



지난 2일 진행된 KB국민은행-KB증권 복합점포 개점행사서 박정림 KB금융그룹 WM총괄 부사장(오른쪽 네번째)과 김청경 KB국민은행 영등포지역영업그룹 대표(오른쪽 두번째), 이형일 KB증권 WM총괄본부장(왼쪽 세번째) 및 임직원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5G시대!

Xceed, 상상을 넘어선 속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고

Xcellent, 탁월한 안정성과 빈틈없는 보안을 갖춘

Xperience, 그 어떤 경험도 가능하게 할

오직 SK텔레콤만의 5GX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5G로 가장 앞선 나라가 됩니다.

| 압도적인 속도 · 끊임 없는 안정성 · 철저한 보안까지 |

5G의 모든 것!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越 주식 온라인 서비스 기념 ‘신짜오 베트남’ 이벤트 진행

KB증권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베트남 주식 온라인 매매서비스’ 오픈 기념 ‘신짜오 베트남’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짜오 베트남’ 이벤트는 베트남 주식을 거래한 모든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커피상품권 1매를 제공하고, 누적 5000만원 이상 거래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모바일 베트남 외식상품권 1매를 제공한다. 또한 KB증권은 연말까지 해외주식 신규 및 휴먼 고객 중 해외주식을 입고·매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91 데이즈(Days)’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주식을 포함한 모든 해외주식 자산 1억원 이상을 연속 91일 보유 시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김문호 기자



SK증권

ELS·ELB 각 1종 공모

SK증권은 6일까지 나흘간 주간연계증권(ELS) 1종 및 주간연계과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제2475회 ELS’는 홍콩항셱(HSCEI) 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 50) 지수 및 코스피200(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5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세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0% (6·12·18개월), 85% (24·30개월), 80% (36개월) 이상이면 연 6.70%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이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65% 이상이면 연 6.70%의 수익을 지급한다. /손업지 기자

현대차증권

최대 연 5.01% 수익 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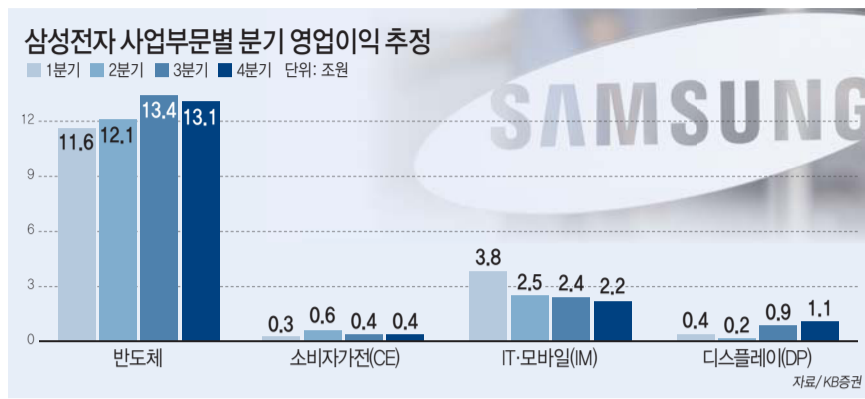
현대차증권은 4일부터 6일 오후 1시까지 총 10억원 규모의 원금비보장형 월지급식 ELS 상품 1종을 공모한다. ‘현대차증권 ELS 1921호’는 홍콩항셱 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50 지수(Eurostoxx50)와 니케이225지수(Nikkei225)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월지급식 상품이다. 발행 후 6개월 마다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로 최대 연 5.01%의 수익을 지급한다. 매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종가 기준)이면 월 0.4175%의 수익이 지급된다. /손업지 기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주춤’… 3분기 ‘반등’

스마트폰·DP 사업 부진 성적 결과 3분기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전망 해외 신뢰도 상승·지배구조 과제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3분기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2분기 평균 영업이익은 15조4140억원이다. 16조원을 웃돌것이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스마트폰 판매 부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7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쓸 것이라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포트폴리오 다양 3월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조 4140억원이다. 순이익은 11조7480억원이다. 매출액은 61조2710억원이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1분기 영업이익(15조6400억원)보다 다소 떨어지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14조700억원을 시작으로 3분기 14조 5300억원, 4분기 15조1500억원에 이어 올 1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사상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다. 부진한 성적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의 부진 때문이다. 기대를 모았던 갤럭시S9와 갤럭시S9+의 출하량이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돌았고, 중소형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은 고객사인 미국 애플의 아이폰X 출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IT·모바일(IM)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2조520억원 (NH투자증권 추정치)대로, 지난해 2분기(4조48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은 1560억원대에 그치면서 1년 전(1조7100억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반도체 부문은 ‘글로벌 슈퍼호황’ 장기화에 힘입어 신기록을 다시 쓸 것으로 보인다. 예상 영업이익은 12조 82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59.8%, 전분기 대비 11.0% 늘어난 수치다. 한국경제의 ‘1선발’에 대한 실망은 이르다는 평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구질이 속도가 떨어진 직구(스마트폰)를 보완해 줄 것으로 보여서다. 증권가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17조3300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기간(14조5300억원)보다 19.3%나 많은 수치로, 이 가운데 13조원 이상을 반도체 사업에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됐다.

IBK투자증권 김운호 연구원은 “D램 가격은 3분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2분기까지 부진하겠으나 하반기부터 개선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도현우 연구원은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7조4000억원(전분기 대비 +14%)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이다”면서 “반도체 신규 캐파 가동이 시작되고, D램 가격 지속 상승이 실적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고객사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실적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은 경계해야 할 변수다. 최근 중국이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시작, 메모리 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신뢰 ‘UP’, 지배구조 개편은 속제 글로벌 신뢰도 한층 두터워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달 삼성전자의 선순위 무담보채권 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05년 7월 이후 13년 만이다. 무디스는 치열한 경쟁과 본질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높은 산업 특성에도 삼성전자가 향후 최소 2~3년간 다수의 사업부문에서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적 리더십이 시장의 수위를 차지하고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더욱 강화된 기술적 리더십, 시장통합에 따른 완화된 경기 변동성과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토대로 향후 수년간 이익과 현금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배구조 개편은 삼성에 남겨진 숙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지난 2일부터 시험 시행되면서 삼성그룹은 고민에 빠졌다. 전문학적 액수의 자분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거나,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할 수도 있게 됐다 때문이다. 삼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생명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삼성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말을 아긴다. 지주사 전환 작업에 정통한 투자금융(IB)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관련 법률부터 세제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내용이 산더미 처럼 많다”며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다. 당장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온라인 높은 점유율·해외 진출 박차... 23일 상장

IPO기자간담회

M CORSET

모두 현금 거래·무차입 경영 추구 언더웨어 시장 확대 ‘기회요인’으로



글로벌 언더웨어 전문기업 엠코르셋이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엠코르셋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5, 6일 수요예측을 거쳐 12, 13일 청약일 실시하고 이달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 밝혔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엠코르셋은 브랜드 상표권을 획득해 제품을 직접 개발·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 20여년 간 TV홈쇼핑을 기반으로 자체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을 구축해 나가며 사업을 성장시켰다. 현재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과 3개 자사몰, 오픈마켓 등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도 약 130여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유 브랜드는 총 19개다. 특히 온라인 유통

역원, 시장 점유율은 4위를 기록했다. 문 대표는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고, 무차입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재무구조를 강조했다. 엠코르셋의 주력 브랜드는 윈더브라다. 이는 지난해 매출 실적의 약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9년부터 누적 매출액은 3448억원이다. 국내 언더웨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은 기회요인이다. 2015년에만 해도 1조8800억원에 불과했던 규모는 지난해 약 2조3900억원으로 커졌다.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 언더웨어 시장은 오는 2021년 약 7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점유율 1%만 가져가도 매출 7000억원 달성 가능성이 높다. 문 대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손익분기점을 넘으면서 중국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1만100원~1만 1500원으로 총 251만8500주를 공모한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



HDC현대산업개발

‘꿈의숲 아이파크’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6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7구역 재개발아파트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 단지는 1711가구 중 59~111㎡ 84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서울에서 4번째로 큰 약 66만㎡ 규모의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해 있고 북서울꿈의숲 내 위치한 꿈의숲아트센터와 상상특목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6호선 석계역도 이용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으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해 있다. 또 장위뉴타운 주변에는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경전철이 오는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위치한 1호선 광운대역으로는 GTX C노선이 계획돼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이 가깝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 역세권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몰이 위치해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의 커뮤니티 시설로 단지 내 실내수영장, 헬스장과 GX룸, 실내골프연습장이 있는 피트니스센터도 조성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주식 ‘손바뀜’ 활발... 코스피 회전율 152%

올해 상반기 투자자 간 ‘손바뀜’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상장주식 회전율이 152.10%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07%포인트 상승했다.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도 284.87%로, 27.60%포인트 높아졌다. 주식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회전율이 높

을수록 주주가 빈번하게 바뀌었음을 뜻한다. 예컨대 회전율이 1천%라면 주당 10차례의 손바뀜이 있었다는 의미다. 상반기에 주식 회전율이 100% 이상인 종목은 코스피 258개, 코스닥 829개였다. 반면 회전율 100% 미만 종목은 코스피 496개, 코스닥 394개로 각각 78개와 108개가 줄었다. /김문호 기자

“성차별 해소 위해 민간에도 근로감독관 배치 확대”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 보고
초·중·고 사건처리 매뉴얼도 보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주는 양성평등 주간으로 23회째인데 올해는 그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은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공시설 영역에선 행안부가, 직장 영역에선 고용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선 문체부가, 학교 영역에선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선 국방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부처 합동으로 ‘성희롱·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을 내놨다. 여기부는 관련 대책을 국무회의에서도 보고했다.

보완대책에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사업장은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높인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 사안발

생 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그동안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해 백서를 제작한다.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남해안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태풍 ‘쁘라삐룬’ 피해와 관련해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긴장감을 갖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 대해선 정부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불의의 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현장에 맞는 신속한 구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최저임금 7% 상승땐 中소조합서 사업자에 노무비요청 가능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 17일 시행
조정 신청땐 10일 이내 협의해야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 3일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상승 요건’이 담겼다.

중기조합은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을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엔 그 이상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도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아직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일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이어도 중기

조합이 대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조합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10일 내 협의가 시작되지 않거나 30일 이내 원사업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방통위-인터넷진흥원 가상통화 거래소 등 개인정보 취급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일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 및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상통화를 노린 해킹사고 발생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것이다.

접속자 수가 많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쇼핑·여행·부동산 관련 앱과 차량공유·커피·엔터테인먼트 등 O2O서비스 앱 중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 조사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과정,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및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방통위는 2017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으로 시정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한 이행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기존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그 밖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여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빈번한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우려가 높은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남북공동 추진안 구상해야”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격려사를 통해 “70년을 이어온 남북분단과 적대 독립운동의 역사도 갈라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주인공은 국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국민의 힘이 대단한 상상력의 바탕이 됐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 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다”며 “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국체로 선언한 것은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외친 선언이자 실천이었고 여기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임시정부수립으로 이어졌다”며 “선조들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섰고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은 100년 동안 잠들지 않았다. 촛불혁명은 3·1운동 정신을 이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이라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책무가 있다”며 “기념사업 하나하나로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날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100명 이내 민간과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1차 위촉된 민간위원 68명에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유철 광복회 회장,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차범근 차범근축구교실 이사장 등 각계각층 인사가 고루 포함됐다. 특히 68명 중 여

성위원이 35명(51.4%)으로 정부 위원회 중 처음으로 위원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소통, 기억기념, 발전성장, 미래희망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정일 춘천교대 교수와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지명됐다.

위원회는 기념사업의 목적에 대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민주·인권·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여름 라면 춘추전국시대... 무더위 속 14國 '탱탱한' 전쟁

롯데마트, 여름 할인판매 행사 진행
 쫄면·막국수·콩국수 등 품목 다양
 비빔면 84%→50.9%로 비중 줄어

여름 시즌을 맞아 다양한 라면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여름 라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다양한 여름라면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들어 여름 라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에서 판매중인 여름라면은 총 14개 품목이다. 이는 지난해 10개 품목과 비교하면 40% 증가한 수치다. 올해에는 '오투기 진짜쫄면', '오투기 춘천막국수', '팔도 막국수 라면', '삼양 중화비빔면', '풀무원 생면식감 탕탕 비빔쫄면' 등 총 5개 품목의 여름라면이 새로



고객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여름라면을 고르는 모습 /롯데쇼핑

<라면 카테고리별 매출 구성비>

구분	2017년 5~6월	2018년 5~6월
비빔면	84%	50.9%
쫄면	-	32.2%
메밀소바	9.8%	9.4%
막국수	-	5.5%
콩국수	6.2%	2.0%

/자료=롯데쇼핑

게 출시됐다.

여름 라면의 카테고리도 확대됐다. 올해에는 여름 라면 신상품이 활발하게 출시되면서 비빔면, 냉면, 콩국수를 포함해 쫄면, 막국수까지 카테고리가 확대됐다. 특히 쫄면과 막국수는 출시 이후 큰 인기

를 끌고 있다. 쫄면은 올해 출시된 이후 지난 두 달간(5~6월) 전체 여름라면 매출의 32.2%를 차지했고, 막국수는 5.5%를 차지했다. 반면, 비빔면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여름라면 전체 매출 중 구성비가 84%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50.9%로 줄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여름 라면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롯데마트는 여름라면을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11일까지 '오투기 진짜쫄면', '오

뚜기 콩국수 라면', '오투기 함흥비빔면' 등 인기 여름라면을 2류음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팔도 비빔면(5인)'은 2980원, '팔도 막국수라면(4인)'은 3480원, '풀무원 탕탕비빔쫄면(4인)'은 3980원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여름라면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다양한 여름라면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오 롯데마트 가공일상 MD는 "매년 여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시원하게 먹는 여름 라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상품군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라며 "올 여름에는 다양해진 여름라면을 즐길 수 있는 상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자동차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따라 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조립라인 근로자들의 모습 /쌍용자동차

사무직도 선택·탄력적 근로제 도입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하는 근무시간 단축 체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차 업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생산직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곳도 있었지만 사무직 종사자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새롭게 도입한 업체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 직원이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근무를 하고 있다. 아침출근 시간은 8시~10시 사이다. 전 날 야근을 했을 경우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2, 3년 전부터 하루 8시간 근무체제로 운영 중이다. 1, 2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는 지난 2006년부터 주간 2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사무직은 2일부터 주 52시간 안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등 3가지 체제로 시행 중이다.

한국지엠은 오전 8시에 출근에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다만 사무직을 제외한 타 부서들은 아직 준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다른 부서들도 최대한 근로시간 단축 시스템에 맞추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는 지난 4월 2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 하고 있

다. 1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40분부터 밤 12시30분까지 8시간씩 작업을 한다. 2조는 추가 잔업 1시간만 더해진다. 주야2교대(11+9.5시간)에서 주간2교대(8+9시간)로 근무형태가 전환되면서 근로자1인당 일평균 근로시간은 10.25시간에서 8.5시간으로 단축됐다. 희망자에 한해 야간근무도 허용한다.

수입차 업체인 토요타코리아는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선택적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8시~10시 사이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다.

BMW코리아는 각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출근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었다. BMW관계자는 "영업 대리점 직원의 경우 개별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사무직 직원들은 전부 주 52시간 근로체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직원 수가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벤츠 코리아는 이미 유연근무제(오전9시~오후6시 근무, 오전7시~오후4시 근무, 오전10시~오후7시 근무), 패밀리 데이(연휴 시작 전일 오전만 근무) 등 근무 관련 다양한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달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체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관련해 어떤 상승효과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반도체 호황 올해가 절정... 中 물량폭탄이 변수

2~3년 슈퍼사이클 하향세 예측도

생산량 공급과잉엔 상황 변화될 것

최근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호황에 맞춰 사상최고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6월 기준 연간 전망의 50% 달성이 예상되며 연간 목표치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이후 중국업체들이 양산을 앞두고 있어 곧 물량이 넘쳐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 등이 고용량 메모리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성장의 결실을 맛보고 있다. 현재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58%에 이른다. 한국업체는 경쟁하는 외국업체보다 기술력에서 2~3년 정도 앞선다는 평가도 받는 만큼 당분간 시장 지위를 빼앗길 가능성도 적다.

하지만 이런 호황도 올해 하반기에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2~3년 주기로 오는 슈퍼사이클이 이제 하향세로 접어들 때가 됐다는 거시적인 예측이 첫번째 근거다. 여기에 중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라인. /뉴스1

국업체들이 3분기부터 벌일 치킨게임으로 인해 시장 공급과잉이 될 거란 현실적 근거도 겹친다.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올해 호황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단가 면에서 D램(DDR4 4Gb 기준) 가격이 작년 6월 3.09달러에서 올해 3월 3.81달러, 4월 3.94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지난달에는 3.94달러로 유지했다. 여기에는 전세계 반도체 수요 가운데 60%를 담당하는 중국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이 작용했다는 업계의 분석이 있다. 중국 정부는 세계 시장 1~3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

크론 3사가 D램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주장하며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발간한 시장 전망 보고서는 올해 반도체 매출 증가율을 12.4%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 또한 내년에는 증가율이 4%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호황이 공급부족에서 온 만큼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면 곧바로 호황도 끝나갈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하반기 완공될 중국 기업의 메모리 생산량이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최대 15.2% 증가”

재정개혁 권고안 ‘일문일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고가(高價) 1주택자의 부담도 최대 15.2% 증가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22.1%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 권고안은 조세분야 과제 4건, 예산분야 5건으로 구성됐다.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다.

다음은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한 이유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중 다수안으로 채택되진 못했으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의견에 대해서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수로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로 했다.”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병호 조세소위원회장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보증기관 수수료 점검하고 하청업체 ‘제값받기’ 총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
 소기업·소상공인 차별 점검
 인력충원 등 조직개편 준비
 9월 ‘기업눈높이심의회’ 발족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보증기관들의 요율이 적정인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차별하진 않는지 등을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점검해 나갈 것이다. 255개에 달하는 국가시험연구기관들에 대해서도 과다 수수료나 시험처리기간 지연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올해 2월 말 위촉돼 취임 100일을 훌쩍 넘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IMF 시절 받아놓은 어음의 60%가 부도나는 등 고비를 넘기면서 3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해왔고 기업인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기관들을 접하면서 느

는 바가 많아 10년전부터 나라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는 말로 기업인이란 공무원이 된 배경을 대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옴부즈만은 차관급으로 비상근 자리다. 하지만 박 옴부즈만은 면접 당시 본인이 상근을 하겠다고 정부를 오히려 설득했다.

자신이 옴부즈만으로 있는 대주그룹을 중

기업에서 중견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기업인 출신으로 정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봉사하겠다는 뜻에서다. 물론 비상근이나 상근이나 월급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박 옴부즈만은 취임 당시 자신을 ‘기업을 대신해 정부에 복을 올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3년간의 옴부즈만 임기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그동안 전임 세 명의 옴부즈만들이 집중했던 ‘규제혁신’ 외에도 ‘시장 공정화’를 꼽았다.

박 옴부즈만은 “대기업들은 계열회사에 물량을 몰아줘 식구들을 감싸고, 최저가찰제를 이용해 하청 중소기업들끼리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 공사 등을 낙찰받으면 ‘교통세’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고 일감을 고스란히 하청업체에 넘기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거래 투명화, 제값받기 등을 옴부즈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극심하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좀더 남기고, 또 그만큼 종업원 임금을 올려줘 결국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평소의 신념에서 나온 포부다.

취임한 지 4개월이 좀 지났지만 벌써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다양한 시도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 새로 오픈한 ‘규제장터 1번가’가 대표적이다.

박 옴부즈만은 “그동안 규제를 발굴하거나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이 부족해 노력한 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장에서 원하는 주요 산업별 핵심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돼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규제장터 1번가는 자동차산업, 게임산업, 레저산업, 신재생산업 등 32개 기업군에 대한 421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등록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렸다.

빠르면 오는 9월까지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의체로,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 가량을 위촉해 ‘핵심 규제’에 관해 옴부즈만이 갖고 있는 ‘권고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달에는 기업들의 인증, 판로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성장응답센터’도 오픈한다.

이렇게 일을 벌여놓다보니 현재의 조직 규모로는 어림없는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과편을 받고, 민간에서 채용한 30명 정도의 옴부즈만실 인원이 연 17억원의 예산으로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옴부즈만 취임 이후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박 옴부즈만은 “새로운 업무에 맞춰 이달 중 옴부즈만실 조직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인력 충원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예산도 좀 더 필요하다. (기자들이) 많은 도움이 돼 달라(웃음)”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그룹 ‘프로덕트 101 챌린지’ 1차 통과 65개사 선정

CJ그룹이 작은 기업과 프로덕트 101 ‘프로덕트(Product) 101 챌린지’의 첫 관문을 통과한 기업을 발표했다.

CJ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창업·중소기업 발굴·육성 프로젝트 ‘프로덕트 101 챌린지’의 CJ 유통 연합 품평회를 진행하고 국내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기업 65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탑스타운에서 진행된 CJ 유통 연합 품평회에서는 ‘프로덕트 101 챌린지’ 1차 선정 기업 101개 중 유통·마케팅·무역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86개사가 참가해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였다.

CJ그룹에서는 유통 계열사 MD, 글로벌 사업 담당자, 미디어 전문가 30여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시장성, 차별성,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중진공-신한은행 청년일자리 창출 ‘협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손잡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중진공은 신한은행과 3일 경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 ‘스마트원정대 출정식’ 가졌다고 밝혔다.

토크콘서트, 출정식, 축하콘서트 등으로 꾸며진 출정식에는 선발된 청년 취업준비생 400명과 중소벤처기업 CEO 멘토 50명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더 나은 내일, 행복한 우리”를 주제로 이상직 이사장, 위성호 은행장과 학생대표 3명이 참여한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진로, 취업,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과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 협동조합 2편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광무영 이사장과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왼쪽부터)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양오염 개선 위해 ‘맞손’ “오염탐사기술로 자율정화”

주유소조합-토양정화조합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과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이 오염된 토양을 효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뭉쳤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이업종간 융합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주유소운영조합과 토양정화조합은 최첨단 오염탐사기술로 업계의 자율정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현재 주유소업계는 정부의 인허가 완화와 따른 경쟁 심화와 신규 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 폐업에 직면한 주유소들이 수도룩하다.

하지만 폐업을 하려해도 운영하던 주유소의 토양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토양환경평가를 해야 해 환경 관련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땅속의 토양오염을 잘못 건드리면 정화비용이 만만치 않고, 비용 추산도 쉽지 않아 폐업도 하지 못

하고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MOU를 통해 주유소운영조합과 토양정화조합은 주유소의 토양환경평가 및 양수, 양도, 임대, 폐업 진행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주유소운영조합 김문식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주유소 부지 소유주나 운영인들이 실시간으로 첨단탐사장비를 사용할 경우 부지의 지중오염실태를 현장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른 토양정화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과거엔 검사결과를 받아보던 수동적 방식이었지만 이제 오염 확인과 정화 설계 등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돼 오염상태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재정부담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과징금 폭탄’ 우려에 집회 “중소 협력업체 사업 붕괴”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업계에 과징금 폭탄을 안길 우려가 있다며 3일 거리로 나섰다.

회원 조합 관계자 100여 명이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같은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개월(1차 위반), 4개월(2차 위반), 6개월(3차 위반) 사업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승강기관리조합 전영철 이사장은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관련 기업에게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현재 70% 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중소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수준을 과도하게 높이면서 연매출 10억원의 기업이 사업 정지 2개월을 당했을 경우엔 4800만원을 벌금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조합측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와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엔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시행해왔다.

/김승호 기자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 관계자들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내년 3월 시행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으로 과징금 폭탄이 우려된다며 ‘개정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사우디 원전수주 위해 美·UAE와 맞손

산업부·한전, 원전사업 수출 논의 하반기 사우디서 원전홍보 로드쇼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아랍에미리트(UAE)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

한국전력 등 원자력 업체는 하반기 사우디에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알릴 로드쇼를 개최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철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은 전날 개최한 원전 수출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사우디 원전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주전에 뛰어들 5개국 모두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 이들 국가 간 합종연횡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전 수출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미국과 정부 간 협력을 협의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미국 원전 업계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4개 경쟁국 중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국내에 원전을 지으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습득했고,

UAE 바라카 원전 수주도 웨스팅하우스와 함께하는 등 오랜 협력 경험이 있다.

산업부는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통해 쌓은 신뢰를 토대로 UAE와도 사우디 원전사업 공동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3월 UAE 원자력공사(ENEC)와 공동 설립한 '바라카 원 컴퍼니'와 중동을 포함한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

출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원전 수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우디의 경제개혁으로 사우디는 한국을 롤모델 삼아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산업부는 조선,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보건·의료 등 위원회에서 선정한 5대 분야별 40개 협력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자동차와 제약 등 사우디가 최근 관심을 보인 분야의 신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9월께 사우디아라비아와 담맘에서 원전 설계, 제작, 시공 등에 참여하는 국내 30여개 업체와 함께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우디 측과 기술이전, 합작투자 등 원전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오늘 한-우즈벡 농업포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 덕계이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와 함께 '한-우즈벡 농업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1월 한-우즈벡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호혜적 경제발전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확대, 농축산업 기반구축, 보건·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마련됐다.

포럼에서 양국은 농식품 유통 정책 공유, 식물검역 체계 현대화 방안,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정책에 대한 논의 등을 바탕으로 국장급 양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한-우즈벡 농업협력 포럼을 계기로 양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국제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세계 주요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올해는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WTO를 비롯한 미국, 중국,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20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국내외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국제교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질서라는 핵심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역구제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연 1000팀... 지정대학 20개로 확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창업지원기간 1년→2년으로 확대 청년취업 인건비 2년간 2400만원

정부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을 통해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인재유입을 위한 창업지원 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하고, 자생적 성장단계까지 자금·공간·판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대학은 2곳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18.6% 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리더 육성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해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우선 혁신적인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의 경우 지원 범위를 기존 창업단계까지에서 자생적 성장까지 넓혀 창업지원기간을 연장(1년→최대2년)하고, 자금·공간·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지원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 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

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해 해당지역 정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중년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또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노동부, 사회적기업 50곳 신규 인증

정부인증 기업 총 1978곳

정부가 사회적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했다. 이로써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모두 1978곳으로 늘어났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에 따르면 신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새로운 제주여행, 곤충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관 운영 등 새로운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두리함께 주식회사는 '세상의 모든 여행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에게 무장애 여행(접근가능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정도에 따라 접근가능 여부를 기재한 '제주도 무장애 여행지도'를 제작하고, '무장애 VR TOUR 콘텐츠(총 68종)'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관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연평균 3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숲속

의 작은친구들은 곤충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곤충생태 전시관 운영 및 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가 사라진 곤충을 위해 폐자원을 활용한 '곤충 서식지 설치' 사업을 진행해 곤충생태 복원과 함께 자원환경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있다.

한편,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베네핏은 미디어·출판·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및 산업의 특수성을 살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정착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김정숙 여사, 윤아 격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앞서 가수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윤아'씨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윤아'씨는 2010년부터 나눔을 실천, 2015년 아이들 중 처음으로 아너 소사이터 회원에 가입해 현재까지 3억여 원을 기부했다. /연합뉴스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생산성본부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경우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제기된 업종별 건의사항을 살펴

보면, 섬유업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선·철강·기계업종 등은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들은 해당 기업의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국토부·코레일·SR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

앞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명절 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올 추석부터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를 시행하고, 예매시간도 당초 오전 6시부터 7시로 한 시간 늦출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명절 승차권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직접 나가야만 예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추세를 감안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명절 승차권 예매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명절 승차권을 예매하는 시간을 오전 7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올해 추석 대수송 기간은 9월 21~26일까지 6일 간이다. 코레일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일자(잠정)는 8월 28~29일, SR은 9월 4~5일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장맛비에 또 무너진 장등천 옹벽 광주시, 부실공사 재시공 나선다

사업비 67% 증액 등 의혹 제기 옹벽 양 옆 10m 가량 추가 보수

광주시가 3차례 보수공사에도 최근 장맛비로 또다시 붕괴한 북구 장등동 옹벽을 장등천 호안블럭(옹벽)을 전면 재시공에 가까운 보수공사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내린 장맛비로 장등천 장등1교 옆 옹벽이 높이 3m, 폭 2.5m 정도 무너져 내렸다.

장등교는 2016년 3월 완공 이후 하천과 도로가 마주한 지반이 내려앉고 갈라지는 등 문제가 계속돼 올해 초까지 모두 3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내린 장맛비로 공사를 마친 곳이 붕괴해 부실공사와 허술한 준공 검사 등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무너져내린 옹벽에 모래 가마니를 쌓아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응급조치를 했다.

특히 장등교 공사는 지난해 시 감사에서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이뤄지는 등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해 보완 시공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시의회에서도 장등천 개수공사 사업비가 67%나 증액되는 등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부풀기 의혹 등이 제기된 바



광주 북구 장등동 장등천 장등1교 옆 옹벽이 지난달 28일 내린 장맛비로 높이 3m, 폭 2.5m 정도 무너져 내렸다. 광주시는 무너져내린 옹벽에 모래 가마니를 쌓아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응급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있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무너져 내린 옹벽 양옆으로 10m 가량을 추가해 최대 폭 30여m에 걸쳐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다.

육안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큼 도로까지 모두 파헤쳐 붕괴 원인을 찾아내기로 했다.

건설본부는 설계사와 감리 등의 기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장등1교에 맞는 재시공법을 선택해 이달 중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인을 확인하고 나면 시공사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공사 추진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장등천 정비사업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2013년 8월에 사업비 55억1천700만원에 발주, H건설이 시공을 맡아 2년여 공사 끝에 2016년 3월 완공했다.

장등1교는 길이 19m에 폭 14m, 장등2교는 길이 22m, 폭 9m로 만들어졌다.

이주성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도목2과장은 “정기적 하자보수 점검 기간에는 옹벽을 뜯어내고 점검을 할 수가 없어서 육안상 균열이 있는 곳에 보수공사를 진행했는데 무언가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붕괴 재발을 막기 위해 폭 30여m를 완전히 철거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재명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광주 복구, 재정자치 구현

예산 편성에 주민 아이디어 듣는다

광주시 복구(청장 문인)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재정 자치 구현에 나선다.

복구는 오는 31일까지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 및 제안해 예산에 반영하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억원 규모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주민 생활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과 수혜 주민이 많고, 지속적인 혜택 공유가 가능한 정책 사업으로 구분된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분과별 현장 확인 및 제안사업별 사전 설명회를 거쳐 주민 모바일 전자 투표와 시민 위원 전

체 투표를 통해 우선 순위를 최종 결정한다.

복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 홈페이지에 제안서를 접수 및 등록, 복구청 기획조정실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인 복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관 주도의 예산편성 과정을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 순위를 선정해 실질적인 재정자치를 확대시키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192건의 제안 사업을 접수받아 총 719건을 실제 예산에 반영했다. /김남중 기자 5555knj@

작년, 전남 귀농·귀촌 '4만명' 넘었다

지난해 전남의 귀농·귀촌인이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7년 귀농·귀촌인 유치 실적 통계'를 보면 전남의 귀농·귀촌인은 전년보다 2006명 증가한 4만607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은 전국이 1.9% 감소했지만, 전남은 0.1% 상승한 2909명(1925가구)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귀촌은 2.7% 상승한 3만7698명(2만8173가구)을 유치했다.

이런 성과는 ▲전남도도와 각 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각종 박람회 참가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시군 팸투어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됐다.

전남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귀농·귀촌 초기에 경험 미숙 등 위험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강화, 농업인 단체와 멘토-멘티를 체결, 현장을 찾아가 진단·처방을 해주는 이동기술지원단 운영 등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도시민들의 농촌정착 수요 증가의 기회를 활용해 2015~2018년 귀농·귀촌인 12만 7000가구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농촌활력증진 도모와 병행해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구례군, 야생화 꽃나물 상품 완판행진

구례군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 차공예박람회에 참가해 구례군 대표 야생화 꽃나물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으로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에서 군은 야생화 꽃나물을 이용한 머핀, 쿠키, 장아찌, 즉석 비빔밥 등 야생화 꽃나물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4일 동안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 gunguck@

전기·수소·고효율 내연... 친환경 '車이야기' 나눈다

2018 국제첨단차기술콘퍼런스

내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 전기차 전문가 13명 미래전망 제안

'2018 국제첨단자동차기술콘퍼런스'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제첨단자동차기술 콘퍼런스(ICAT)는 배터리 장착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고효율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 관련 정책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주제를 다루는 국제토론의 장이다.

올해는 'EV(Electric Vehicle) Green'

라는 주제로 전 세계 12개국의 대학 자동차연구소, 연구센터, 자동차 회사 및 부품회사의 전기자동차 전문가 13명이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 기술과 시장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을 제안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인공인 신진교수와 연구원, 대학원생들이 구두 10편과 포스터 39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주니어 세션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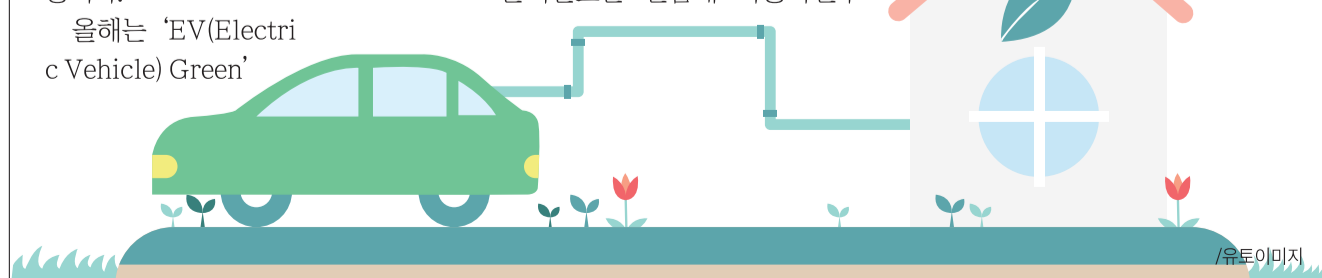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린카 전문 전시회인 '국제그린카전시회'와 한 공간에서 개최돼 더욱 주목 받는다.

콘퍼런스는 전남대 자동차연구

소, BK21+사업단, 울산대, 호남대와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등이 공동주관하며 광주시, 한국자동차공학회 후원으로 열린다.

최병철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장은 “콘퍼런스가 국제그린카전시회와 함께 열려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봉재명 기자



/유통이미지

목포어린이도서관

초등생 전통놀이 체험

목포어린이도서관이 오는 13일과 20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2018 학기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중압감을 떨치고 친구들과 신나고 재미있게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나라 전통 악기 태평소를 만드는 시간도 갖는다.

프로그램은 모두 동일하며, 목포 시내

와 인근 초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목포어린이도서관 “부모 세대는 자라는 동안 노는 것이 밥먹는 것처럼 일상이었으나 요즘 초등학생은 공부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자녀에게 교과 관련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도 행복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 희망자는 오는 6일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www.mokpolib.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 목포=김남중 기자



'2017년 고객만족브랜드 대상' 서비스(호텔) 부문 대상 수상

'2011년 품질경영대상'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수상 (호텔업계 최초)

상기 수상내역은 비지애이치코리아 수상내역입니다.



세계 최고의 호텔 **베스트웨스턴 플러스**가 전주, 중심에 서다!

전주 한옥마을 그 중심에 세계 최대 특급 호텔 체인 **베스트웨스턴 수익형 호텔** 국내 최초 분양!

세계 최대 특급 호텔 체인
마감임박

선착순 분양!
실투자금 4천만대

숙박시설 부족한 전주
1,100만명
관광객



브랜드 프리미엄
전 세계 100개국
4,100개 호텔 운영,
50년 전통 브랜드

조망 프리미엄
전주 원도심 7층 이상
건축 제한으로
탁 트인 조망권 확보

문화 프리미엄
전주성 복원사업,
전라감영 복원으로
관광객 유치 극대화

시설 프리미엄
전주 숙박시설 중
최소성 있는 쾌적한
커뮤니티 제공

전주역

한옥마을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
전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도시 전주, 한옥마을 최고급 호텔을 잡아라!

- 안심 보장제도**
- 1 **호실당 8% 확정수익 보장 1년치 월세 일시불 선지급 호텔 준공 시(1년간)**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2 **보증금 일시불 선지급(1년간)**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3 **수익보장 공증서 발행**
시행사: 유에리트몰러스 제공

- 계약자 특별계약**
- 1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연 7일 무료 숙박 제공**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2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부대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계약자 본인 및 지정인 포함)**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3 **베스트웨스턴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객실 할인 혜택(전국 6개 지점) BGH 코리아 제공**



※ 상기 CG 및 이미지, 일러스트 지면 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홍보물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프리미엄 혜택은 시행시 및 운영사에서 제공하며, 자금관리 및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과는 무관합니다.
※ 전주 상역 및 전라감영 복원사업, 한강 주변 교통시설과 주변 현황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사는 이와 무관합니다.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과 베스트웨스턴 인터내셔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총 249실
17.83㎡ 52.07㎡

· 시 협 MERIT+PLUS
· 시 공 CheongSan
· 자금관리 KAIT 한국자산신탁

분양문의 1522-1966

청약 계좌 안내: 신한은행 100-032-557865

계좌번호: 100-032-557865

예금주: 한국자산신탁㈜

숨 막히는 더위엔 숨 쉬는 속옷으로 '쾌적하게'

덥고 습한 장마철이 되면 땀 냄새, 끈적한 피부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고온다습해 땀이 잘 마르지 않고 몸에 머무르기 때문에 속옷마저 젖는 일이 다반사다.

이렇다보니 장마철이면 땀과 습기를 잡아주는 기능성 속옷이 인기를 얻는다. 장마철에 최적화된 기능성 속옷은 땀을 빠르게 흡수·건조시켜 습한 날씨에도 쾌적함을 준다. 여성은 브래지어, 남성은 러닝셔츠와 드로즈만 잘 갖춰 입어도 상쾌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습기 차는 브래지어, 통기성이 관건**
여성의 가슴 부분은 습기가 머무르기 쉬운 부위다. 장마철에 장시간 브래지어를 입고 있으면 가슴 부분의 땀이 스며들어 축축해지곤 한다. 따라서 장마철에 가장 중요한 브래지어의 기능은 통기성과 흡습속건 기능이다. 브래지어 컵 안쪽은 피부가 직접 닿기 때문에 통기성과 흡습속건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대표적인 장치는 컵 하단에 활용하는 '메시 테이프'다. 작은 구멍의 조직으로 된 메시 테이프가 컵 하단에 사용되면 브래지어 안에 갇혀 있던 땀과 열이 쉽게 배출될 수 있다. 또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는 몰드컵을 활

흡습속건 기능 탁월한 속옷 주목
남녀 불문 통기성 높은 제품 인기
인견원사·메시·린넨 등 소재 다양

용하기도 한다. '에어홀 몰드컵', '타공 몰드컵' 등으로 불리는데, 이 구멍을 통해 땀이 배출되고 공기가 드나들어 쾌적한 착용감을 준다.

비비안, 비너스, 보디가드 등은 메시 테이프를 활용한 브래지어를 선보이고 있다. 비비안의 경우 메시 테이프 통기성을 높이고, 노와이어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더했다. 또 인견 원사를 활용한 브래지어도 쾌적함을 얻기에 제격이다. 비너스의 '라이브쿨', 보디가드의 '쿨리쉬 망각브라' 등도 메시 테이프와 몰드컵을 활용한 제품이다.

냉감 효과에 탁월한 아스킨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 예스의 '사카 시리즈'도 있다. 예스가 올 여름 새롭게 출시한 이 제품은 날개 부분에 마사 원단을 사용해 통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비비안 디자인실 강지영 팀장은 "여름용 속옷을 고를 때에는 땀을 빠르게



제임스딘의 카모플라주 드로즈. /제임스딘

흡수하면서 건조시키는 기능성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위생상으로도 좋다"며 "인견 원사나 메시 소재를 활용한 속옷을 입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부직포 컵으로 된 브래지어를 선택하면 장시간 쾌적하게 속옷을 착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울 수록 두 겹, 남성도 기능성 속옷**
남성들을 위한 기능성 속옷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특히 남성 팬티는 낮

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습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에어로쿨 소재나 통기성이 뛰어난 메시 원단 등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팬티뿐 아니라 러닝셔츠 역시 기능성 원단으로 된 속옷을 입으면 한결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여름에는 땀다는 이유로 겉옷 하나만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땀이 바로 겉옷에 흡수돼 불쾌한 느낌을 주고 셔츠에는 얼룩이 진다. 따라서 습한 장마철일수록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기능성 원단의 러닝셔츠를 입는 것이 좋다.

남영비비안의 남성 브랜드 젠토프가 출시한 드로즈는 메시 원단을 활용해 통기성이 높다. 또 린넨 원단에 에어로쿨 소재를 함께 활용한 제품부터 대나무 섬유와 인견 원사를 함께 활용한 러닝 셔츠, 드로즈도 주목 할만하다.

제임스딘의 '카모플라주 드로즈'와 '블루 그레이 에어로쿨 남성 러닝'도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을 겨냥한 제품이다. '카모플라주 드로즈'는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고 건조가 빠른 흡습속건 기능을 가진 콜론 원단을 활용했으며, 메쉬 소재와 분리 기

능성이 적용돼 통기성이 높다. '블루 그레이 에어로쿨 남성 러닝'도 흡습속건과 통기성이 좋고 에어로쿨 기능성 원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메쉬 자카드 소재로 통기성을 강화했다.

BYC가 새롭게 출시한 '보디드라이' 드로즈와 러닝셔츠도 냉감·흡습속건 신소재 원사를 적용한 기능성 속옷으로 착용했을 때 시원한 느낌을 준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홈쇼핑 시각장애 고객 애로사항 팔 건어

전담 상담원 연결 등 응대 체계 구축

홈쇼핑이 시각장애 고객들을 배려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홈쇼핑은 시각장애 고객들을 위한 전담 상담원 응대 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각장애 고객들은 TV방송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세정보 확인, 옵션 선택, 결제 등 주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구매후 반품이나 교환, A/S 등을 요청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이를 위해 홈쇼핑은 시각장애인 고객 등급을 신설해 시각장애 고객들이 전화를 할 경우 전담 상담원들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배송 지연 등 이슈 발생 시 공지되는 SMS 또는 알림톡 역시 시각장애 고객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전문상담원이 연락해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후 관



서울 마곡동 홈쇼핑 사옥. /홈쇼핑

리 프로세스도 도입했다.

특히 홈쇼핑은 전문 상담원들이 업무숙련도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시각장애 고객들에 대한 CS 마인드를 고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홈쇼핑을 이용하는 시각장애 고객들은 전화주문을 통해서도 모바일 앱 주문 혜택인 '10% 할인 +10% 적립'도 상시 적용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장수돌침대, 8월까지 전품목 '특가 혜택'

장수돌침대는 8월31일까지 전국 지점에서 '여름에 만나는 장수돌침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결산 특가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장수돌침대의 스테디셀러인 돌침대 4종, 돌소파 2종, 안마의자 전 품목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가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기존 구매 고객을 위한 매트리스 교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매트리스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기존 매트리스를 스톤 매트리스로 교환신청하면 다양한 사은품과 함께 전문 돌마스터가 직접 방문해 실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



수돌침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매장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석재 및 보료 옵션 등 맞춤형으로 선택해 제작할 수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장수돌침대 공식 홈페이지나 전국 대리점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CJ ENM 오쇼핑, 中企 해외진출 '앞장'

해외 홈쇼핑 초청 中企 수출상담 K-뷰티·패션 글로벌 확대 집중

CJ ENM 오쇼핑 부문이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해외 홈쇼핑 초청 수출 상담회에 참여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CJ ENM 오쇼핑 부문은 2~3일 이틀 동안 총 130여개 중소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 중 가장 큰 규모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이번 수출상담회에 CJ ENM 오쇼핑 부문은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6개국의 홈쇼핑 MD 12명이 참여해 중소기업 담당자들과 1:1 상담을 벌였다. 참여 기업들 중 가장 많은 참석 규모로 생활과 주방용품에서부터 패션과 뷰티 상품까지 각 나라별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K-뷰티와 K-패션의 글로벌 시장 확산에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어, 뷰티와 패션 상품을 다루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더욱 관심을 갖고 상담에 임했다. 상담에 참여한 중소기업 더블유티지의



CJ ENM 오쇼핑 부문의 멕시코 법인인 CJ Grand MD가 2일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홈쇼핑 초청 수출 상담회에 참가해 국내 중소기업 담당자와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CJ ENM 오쇼핑

박관영 대표는 "현지 고객의 성향과 유통 시장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며, "현재 중남미와 동남아 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제품의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명확한 해답을 얻고 간다"고 말했다.

CJ ENM 오쇼핑 부문은 다양한 국내 기관들과 공동으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를 매년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이번 한국무역협회 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부,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 등과 함께 하는 수출

상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CJ ENM 오쇼핑 부문은 TV홈쇼핑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CJ ENM 오쇼핑 부문은 2004년 TV홈쇼핑사 중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한국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동남아, 중남미 지역까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오쇼핑 부문이 매년 해외에 판매하는 한국 상품 중 80% 이상은 중소기업 상품이다.

/신원선 기자 tree834@

'캡틴 아메리카 에디션' 블랙박스 출시

링크웨어 네번째 마블 시리즈

링크웨어는 마블 콜라보레이션 블랙박스인 '아이나비 Z300 캡틴 아메리카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아이나비 Z300 캡틴 아메리카 에디션'은 아이언맨, 토르, 블랙팬서에 이은 네번째 마블 에디션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마블 히어로 캐릭터 중 하나

인 캡틴아메리카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전방카메라 렌즈 주변으로 시그니처 컬러인 블루, 실버, 레드 색상을 적용해 방패형상의 입체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했다.

캡틴 아메리카를 모티브로 한 GUI(그래픽 사용자환경)도 적용됐다. 전원 온·오프 시 마블 로고는 물론 캐릭터를 상징하는 아이콘과 사운드를 적용했으며 제품 패키지, 마이크로 SD카드, 후방카메

라, 외장 GPS 등에도 로고와 캐릭터를 적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또 전방FHD, 후방HD 영상화질을 탑재해 주행뿐 아니라 주차 중 녹화 기능도 강화됐다. 특히 야간주차 시 나이트비전이 적용돼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며 타임 랩스, 포맷 프리2.0, 배터리 방전방지 기능, 패스트 부트 솔루션 등도 갖추고 있다. 가격은 16G 26만9000원, 32G 29만9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女心 이어 男心까지... '그루답터' 등장에 맨즈뷰티 뜬다

신규 브랜드 론칭·라인업 강화 등 화장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기 힘써 '올인원' 제품도 꾸준히 매출 증가

남성들의 외모 관리가 하나의 스펙으로 자리잡으면서 '맨즈뷰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뷰티 업계는 남성 전용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남성을 위한 '옴' 라인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아이템을 출시하며 남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은 전년 대비 4.1% 성장한 1조2808억원 규모다. 오는 2020년에는 1조4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루밍족'(외모 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남성)을 넘어 '그루답터'가 대세로 떠올랐다.

스킨, 로션, 클렌징 등으로 단순히 피부 관리를 하던 것을 넘어, 색조와 제모, 문신 등에 관심을 갖는 남성들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올리브영 명동본점 그루밍존에서 남성 고객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올리브영

뷰티 업계는 남성 라인을 따로 론칭하고, 아이템을 세분화하며 남성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고 있다. 그 예로 네이처리퍼블릭의 경우, 남성의 피부 타입과 연령대별로 분류한 6개 라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키엘과 시세이도 프로페셔널은 각각 '그루밍 솔루션즈'와 '더 그루밍'으로 헤어 관리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보이

고 있다. H&B스토어의 남성 전용 제품군도 크게 늘었다. 올리브영은 현재 740여 개의 남성 뷰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팔라볼라의 경우 2016년 121종이었던 남성 전용 제품이 지난해 222종으로 늘어났다. 신규 브랜드 론칭도 활발하다. LF는 오는 9월 남성 화장품 브랜드 '헤지스 맨

'그루답터'란?

'그루밍'(grooming)과 '얼리어답터'(early adopter)의 합성어다. 그루밍족에서 한 단계 진화한 남성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화장품, 패션 등에 관심이 많고, 신제품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남성들을 의미한다.



스킨케어'를 새롭게 선보인다. SNP화장품의 '엠솔릭', 일본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벨크롬' 등도 국내 '맨즈뷰티' 시장에 뛰어들었다.

화장하는 남성들이 늘어났지만, 화장을 여전히 낯선 영역으로 여기는 남성들도 적지 않다. 이런 남성들을 위한 제품들도 눈에 띈다. '올인원'(All-In-One) 화

장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는 이유다.

스킨, 로션, 에센스 등 기초 화장품을 하나로 합친 '올인원' 화장품은 화장이 어렵고, 귀찮은 남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군이다. H&B 스토어 톱스의 경우 남성용 올인원 제품의 올해 1~5월 매출은 34% 증가했다.

색조에서도 '올인원'이 대세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14년 내놓은 남성 전용 아이오페 맨 에어쿠션은 SNS를 통해 입소문이 확대되면서 주목 받는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남성들의 화장품 구매액도 나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현대백화점이 조사한 남성 화장품 객단가(1인당 구매액)에 따르면 2015년 7만8000원에서 지난해 8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올리브영의 경우 남성 카테고리 매출 신장률이 최근 3년간 연평균 40%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남성 고객들이 과거에는 추천해주는 제품을 사다면, 최근에는 직접 제품을 알아보고 관련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오리온, 간편식 브랜드 '마켓오 네이처' 론칭

마켓오 네이처 론칭 기자간담회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유통망 활용 연매출 1000억 메가 브랜드로 육성

오리온이 신규 간편대용식 브랜드 '마켓오 네이처'를 론칭하고 간편대용식 사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농산물 공급망과 유통망을 적극 활용,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3일 마켓오도곡점에서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 이경재 오리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켓오 네이처' 론칭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김병원 회장은 이날 "오리온이 농협과 파트너가 되어 12가지의 상품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입을 뗐다. 이어 "모든 식품에는 농산물이 쓰이지만, 우리 농산물 중 가장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쌀'이다. 밀가루 섭취량이 늘면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밀가루를 대신해 쌀가루로 소비하면 어떻게 고민하던 끝에 오리온과 파트너가 되어 쌀가루로 만든 과자를 선보이게 됐다"고 맞손을 잡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는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쌀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1석2조의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마켓오 네이처 '오!그레놀라' 3종(건은콩, 과일, 야채)과 '오!그레놀라바' 3종(검은콩, 무화과베리, 단호박고구마) /오리온

마켓오 네이처는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선언한 오리온이 야심차게 내놓은 간편대용식 브랜드다. 바쁜 현대인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건강한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내 대용식 시장은 3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지난 2015년 520만 가구를 넘어선 1인 가구도 계속 늘고 있어 대용식 시장의 성장세는 갈수록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에 오리온은 향후 그룹의 성장을 이끌 신수종 사업의 한 축으로 간편대용식 사업을 선정하고 2016년 농협과 합작법인 오리온농협(주)를 설립, 약 620억원을 투자해 경상남도 밀양에 간편대용식 생산공장을 건설했다. 아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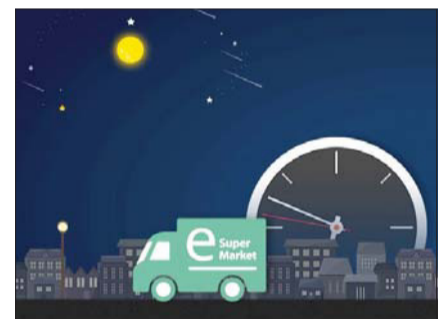
오리온 연구소에 별도의 전담 개발팀을 구성했다.

허인철 부회장은 "약 3년 전 농협이 우리 농산물을 갖고 제품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고 제안해왔을 때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농협의 좋은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망과 유통망, 그리고 오리온의 원료 가공 노하우와 동남아시아 시장 장악 능력이 결합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자신했다"고 론칭 소감을 전했다.

오리온은 마켓오 네이처를 향후 5년 내 연 매출 1000억원의 메가 브랜드로 육성해 국내 간편대용식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중국 등에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침 재료준비 택배로... '새벽배송' 시작

현대백화점 '새벽식탁' 배송 서비스 오후 4시까지 주문시 다음날 아침 배송



현대백화점이 온라인몰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다음날 아침에 배달해주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대백화점의 강점인 프리미엄 식품을 앞세워 급성장하고 있는 새벽배송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의 식품 전문 온라인몰인 'e슈퍼마켓'은 CJ대한통운과 손잡고 '새벽식탁' 배송 서비스를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새벽식탁' 서비스는 오후 4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문 상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백화점 업계에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백화점 토종 식품 브랜드 '명인명촌',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화식한우', 청과 브랜드 '산들내음', 가정 간편식 '원데이빌' 등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신선·가공 식품을 고객의 집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픈 초기 신선식품·가공식품·즉석반찬·주방용품 등 100여 개의 제품을 운영하고, 올 연말까지 배송 가능 제품을 6000여 개로 확대할 예

정이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새벽식탁 서비스 론칭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별도의 T/F 팀을 꾸려 가능 상품 선정, 소비자 수요 예측, 신선도 유지 위한 패키지 개발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배송은 서울 전 지역과 부천·일산·과천·수원·광명·구리·의정부 등 경기지역(남양주·시흥 등 일부지역 제외), 그리고 강화도·영종도·서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인천지역에서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측은 향후 주요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배송 가능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앞세워 치열해지고 있는 새벽배송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배송 가능 지역, 품목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유통 단신

스무디킹

여름 한정 '슬림 자몽 스무디' T맵 음성주문 서비스 선택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T맵 음성주문 서비스 선택

스무디킹(SMOOTHIE KING)이 다이어트의 계절여름을 맞아 '슬림 자몽 스무디' 2종을 시즌 한정으로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자몽은 칼로리가 낮고 특유의 짹짹한 맛과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는 나린진 성분이 풍부해 다이어트족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과일로 손꼽힌다. /김민서 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T맵(Tmap)과 스타벅스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사이렌 오더가 연동된 음성주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길안내와 동시에 음료의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하는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라면 T맵이 실행되는 모든 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민서 기자



GS25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종이 쇼핑백을 선보인다. /GS리테일

GS25, 비닐 줄이기 앞장... 종이 쇼핑백 도입

GS25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종이 쇼핑백을 도입하며 비닐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다. GS25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GS25 점포에 종이 쇼핑백 도입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종이 쇼핑백 사용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종이 쇼핑백은 재활용이 쉬운 종이로 제작됐다. 크기에 따라

150원(대), 100원(소)에 판매될 예정이다. 고객은 상품 구매 후 담아가야 할 봉투가 필요할 경우 종이 또는 비닐 쇼핑백(20원)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GS25는 편의점에서 비닐 아닌 종이 쇼핑백을 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기획을 선보이게 됐다. /김민서 기자

서울여대에 부는 코딩 열풍... 방학도 반납하고 심화수업

8월 3일까지 5주간 7시간 교육
디지털미디어학과 등 172명 의무
이수학생 체험형 인턴십 연계도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서울여대(총장 전해정)에는 4년 10학기 과정이 있어서다. 4년제 대학의 학제는 8학기지만, 서울여대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학생들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통해 총 20학점을 추가 수강해 10학기를 듣는 셈이다.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생들이 주로 방학을 이용해 고액의 학원비를 내는 현실 속 서울여대의 코딩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교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교내 50주년기념관에서 '2018학년도 서울여대대학교 하계 SW사관학교 입학식'을 갖고 이날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5주간 매일 7시간씩 코딩 교육에 돌입했다.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사관학교는 지난 2016년 과기정통부로부터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설립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여름학기부터 시작해 이번까지 3회째 진행되고 있다. 총 교육과정은 4년 10학기제다.



과기정통부 SW중심대학사업 선정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사관학교가 4년 10학기제 소프트웨어 집중교육을 진행하는 등 서울여대의 코딩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여대학교

이번 여름 학기에 진행되는 강좌는 '프로그래밍 Guru(그루) I, II' 과정으로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정규 학기에서 진행하기 힘든 집중 교육을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감을 잡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역량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 250명으로 서울여대에 설치된 디지털미디어학과·정보보호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 등 3개 과 재학생 172명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외 3~4학년 위주의 데이터과학연계 전공과 기업보완융합연계전공 등 교내 6개 연계전공 수강 학생이 참여한다.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비교과 프로그램이지만, 소프트웨어 교육 측면에서 효과도 크고 학생들 호응도 좋다. 또 대학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이 보통 방학을

이용해 적게는 30~4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내는데, 서울여대 학생들은 무료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셈이다.

소프트웨어사관학교 그루 교육을 총괄하는 서울여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강승석 교수는 “방학을 이용한 집중교육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 감을 잡고 좀더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경제적 부담도 없이 심화수업을 통해 향후 취업 등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여대는 특히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된 유일한 여자대학으로서 ‘섬 인지적인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강 교수는 “프로그래밍은 사실 여성에 적합한 영역”이라면서 “국내 산업 구조상 프로그래밍 분야가 야근 등 험한 환경에 있어 여성들의 진출이 적지만, 차츰 여건이 개선되면서 여성들의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실제로 이 같은 서울여대의 프로그래밍 교육은 취업 연계로도 이어지고 있다. 매년 소프트웨어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50여명이 체험형 인턴십이나

취업연계형 인턴십을 통해 관련 산업 현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턴 경험을 한 회사에 졸업후 바로 취업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사관학교를 통해 프로그래밍 교육과 소프트웨어 영어, 1인 1소프트웨어 재산권 확보 등을 졸업인증제로 두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 진출을 위한 엄격한 학사관리도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강 교수는 “4학년에서 캡스톤교육과정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 논문으로 발표하고 졸업 전에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특허출원 등의 경험을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취업 면접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코딩 교육 열풍과 관련해 “코딩은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중간 톨이다. 3000~4000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가운데 어떤 언어를 쓰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결국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기술보다는 인문학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논리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사관학교는 그런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서강대 코어사업단

인문고전 강독회 개최

서강대학교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단장 류동춘, 이하 코어사업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인문고전 강독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독회는 대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인문사회 고전 원전을 탐독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독회는 동양 인문고전인 '주역'과 서양 인문고전 '오뒷세이아', 사회과학 고전 칼 맑스의 '자본론' 1·3권, 독일사상고전 헤겔의 '정신현상학', 프랑스사상고전 앙리 베르그송의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등 총 5회로 진행된다.

코어사업단 류동춘 단장은 “서강대 재학생들이 인문학에 깊이있는 관심을 가



지는 것에 이번 원전 강독회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학계를 이끌 창의적 인재들이 이 프로그램을 그 첫걸음 또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독회는 앞서 지난 1~2월 서강대 코어사업단이 인문고전 강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여름방학 중에도 다시 개최하게 됐다.

중앙대

한·일·중·러 클러스터 논의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가 대학을 방문해 차용구 중앙대 접경인문학 연구단장 등을 만나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표하는 접경연구소들 간 국제 연구클러스터 발족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은 1977년 설립된 중국 국무원 직속 국립연구기관으로 6개 학부, 37개 연구소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변강연구소는 역사학부 내 소속돼 있다.

중앙대 접경인문학연구단 차용구 단장은 “중국의 대표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동북아 화해와 공존을 위한 연구 클러스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재능대

재학생 명예홍보대사 발대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지난 2일 제1기 재학생 명예홍보대사 발대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학과별 재학생 대표로 구성된 총 21명의 명예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대학 홍보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이기우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인천재능대를 대표해서 대학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 소통해 학교의 명예를 빛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발대식에 앞서 학생들은 대학의 교육이념, SNS 홍보 방법, 학생기자 소양교육 등 명예홍보대사가 갖춰야 할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용수 기자



한양대, 국내최대 국제여름학교 입학식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8 한양 국제여름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외국인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입학식에는 49개국에서 온 1,800여 명의 외국학생을 포함,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는 해외대학생 기준 국내대학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연협뉴스

“한국전력공사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학생 공기업 선호도 15년만에 ‘지각변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초임 약 4300만원
“높은 연봉, 순위상승 이끌었을 듯”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폐공사의 선호도 상승이 눈에 띄었고,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공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선호도가 드러났다.

3일 인크루트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식된 공기업 중 지난해 매출순위 1위~20위까지를 대상으로 대학생 회원 1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순위가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지난 2004년부터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를 벌여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설문방식은 대상 공기업에 대학생에게 무작위 순으로 노출하고 가장 선호하는 기업 1곳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2009~2017 TOP3 History〉

/자료=인크루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중소기업 은행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가스공사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 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 은행	한국 남동발전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대학생 선호 기업 1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18.2%)가 차지했다. 지난 2011년을 제외하고 9년 간 매년 1위를 차지했던 한국전력공사(18.0%)를 간발의 차이로 2위로 밀어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전체순위에서도 5위를 차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입 초임은 약 4300만원으로 공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높은 연봉이 순위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생 선호 공기업 3위는 한국조폐공사(8.9%), 4위는 한국공항공사(8.8%)가

올랐다. 두 공기업의 득표율도 0.1%p 차이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특히 한국조폐공사는 이 조사에서 사상 첫 3위를 기록했고, 4위 한국공항공사는 1위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최고 수준의 선호를 얻어 공항공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6.2%), 한국수자원공사(5.6%), 한국토지주택공사(4.9%), 한국수력원자력(4.7%), 한국가스공사(4.5%), 한전KPS(3.7%)가 각각 5~10위를 차지해 톱 10에 랭크해 인기 기업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595만원

금강산 길목, 주말 예약 99% (2주전예약), 등기제분양

금강산 오션리조트 분양!

여름 성수기 선착순 예약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 곳
 통일전망대·화진포·송지호와 금강산 비경을 간직한 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 고성 실제 전경입니다.

분양특전

- 1) 연간 30일 사용
- 2) 전국 9체인 사용 가능
- 3) 주말예약 99% (2주전 예약시)
- 4) 하계 성수기 예약 접수중
- 5) 안전한 지분 등기제 분양

문의 : 02)541-0113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 하며 매매 상속 중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패밀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를 7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3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타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 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2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 하고 필리핀 세부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 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 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제로만 분양을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 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로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서는 바닷가 백사장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금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50만원
 국민은행 469301-01-127-122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제주리조트

해발 3,000m 골프 라운딩

옥룡 설산 골프 5일 179만원
 (항공료, 식사, 숙박 2인1실, 그린피, 카트, 캐디피)

해외골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레이이크 사이드 C.C 5일 135만원
 (항공료, 숙박 2인1실, 식사, 그린피, 캐디비, 미팅 센딩비)
<중국>
 위해 호당가.C.C 3일 599,000원
 (항공료, 숙박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전동카트)
 겨울 성수기 조기예약 특가 / 조기 마감 주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9일 139만원
 (항공료, 5성급 호텔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트)

<일본>
 아시아나 항공 이용
북해도 루스츠 4일 13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 카트피, 송영비)
니가타 청광아이즈 4일 11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 카트피)
라오항공 이용
라오스 부영C.C 7일 99만원
 (항공료, 리조트 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필리핀 클락 뉴아시아 7일 99만원
 (항공료, 리조트 2인1실, 조/석식, 무제한 그린피)
사이판 라오라오베이C.C 5일 85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식, 그린피(노캐디), 전동카트)
 포함사항 : 골프 2회 (36H), 렌도 1박, 조식
국내골프 (7월말 ~ 8월 초 1박 2일)
 평창 휘닉스C.C 272,000원 ~
 용평 버치힐C.C 285,000원 ~
 해발 600m
 횡성 웰리힐리C.C 27만원 ~
 설악 썬밸리C.C 265,000원 ~
 원주 오코밸리C.C 27만원 ~
 여수 경도C.C 345,000원 ~

IL tour 02-541-4242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 건강 파트너
사우나 집에서 즐긴다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출용 국내 출시

 원적외선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자동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5-6인용
 2인용 290만원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양평 전원 주택지

 대지 66㎡ 건축 125㎡ / 매가 4억 9천만원 (2층 철골)
 대지 726㎡ 건축 125㎡ / 매가 4억 8천만원

서종면 노문리 7,723㎡ 12억 3.3㎡ 48만원	서종면 수입리 870㎡, 구옥 82㎡ (구옥) 매가 : 395,000,000원 3.3㎡/150만원 즉시 신축 가능
옥천면 신북리 대지 495㎡ 매가 : 175,000,000원 3.3㎡/110만원 토목공사 완료 전원단지 주차 박스	서종면 노문리 대지 300㎡ 매가 : 195,000,000원 3.3㎡/100만원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문의 02-543-1177

“창의적 전시·역동적 성장으로 변화의 바람 이끌 것”

인터뷰
배재웅 국립과천과학관장



국립과천과학관 개관 10년째 맞아 공모전 등 과학 알리려는 노력 힘써 관람객 양적 성장 한계... 변화 필요

“과학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년 내내 다양한 행사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만난 배재웅 관장은 열정적으로 목표를 이야기했다. 그는 취임 6개월이 좀 넘었지만 올해 개관 10년째를 맞이하는 국립과천과학관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의적 테마를 잡은 특별전시가 늘어나고 ‘스토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람객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과천과학관은 전시, 과학교육, 과학관련 축제 같은 세 가지 일을 축으로 해서 운영된다. 현실적으로 전시관은 한번 만들면 5, 10년을 바꾸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다양한 특별전시, 과학교육, 체험학습 등으로 보완해주어야 과학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 이 가운데 특별전시에 대해 과학관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배 과학관장은 “그동안 특별전을 많이 했는데 주로 외부 콘텐츠를 끌어와 우리 공간을 활용해 전시하다보니 전시회 품질이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우리 의도보다는 제공기관의 의도에 많이 좌우되는 내용이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100% 기획을 하고 스토리라인을 짜고 나머지 부분만 업체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런 부분에서 과천과학관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이언스쇼, 국경일과 기념일 연계 이벤트 등 중앙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재미있는 창작 체험’ 코너를 3월부터 상시 운영한다. 또

한 ‘스티븐 호킹, 별이 되다’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관람객 대상 ‘오픈 특별해설’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전 전담조직 및 전시 공간(약 300평) 마련 등 자체기획 역량강화로 금년에 3개의 순수 자체기획전도 열 예정이다.

지금까지 과천과학관은 찾아오는 관람객 위주로 운영했는데 이제는 사회에 과학문화를 알리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학교사 단체 등 과학활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 과학을 알리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상콘텐츠 공모전, 과학놀이 콘텐츠 공모전을 관련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와도 함께 일하면서 과학관을 소개하는 직간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캠프를 ‘오늘은 과학관 가는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학생을 초청해서 무료로 입장시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 원격 생중계 장비를 갖춘 학교를 물색해 행사 생중계를 하는 방식도 추

진하는 중이다. 또한 과천 과학관의 야외 공간 24만㎡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전시관 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외 주변 공원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휴식 공간으로 생각하고 10년을 내다보고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9월까지 과학 예술 생태 놀이가 어우러지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기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와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 석사를 졸업하고 문화관광부 문화기술과장을 거쳐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을 지낸 만큼, 배재웅 과학관장은 실용적이고도 창의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특히 부임후 부서간 업무를 융합 시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은 자기일에만 충실한 구조였고 남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간섭처럼 생각하는 조직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획아이디어 회의를 만들어 타 부서 부문도 이야기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지요. 지금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면 두 가지를 가져오는 수준까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들었습니다.” 배재웅 관장이 만든 이 회의의 참석 조건도 과격적이다. 원한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10분만 있다가 나가도 된다. 창의력과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배려다.

그는 과천과학관이 단순히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 년전 싱가포르에서 본 온실 속 생태체험장이 인상 깊었다면서 직접적인 과천과학관의 미래 롤모델로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이언스센터를 꼽았다. 박물관적인 성격이 있는 곳과 유물로 경쟁하기는 어렵지만 행사와 과학교육의 수준으로 승부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다.

새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전통과학관에 대해서 배재웅 관장은 “전통 과학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고 싶다. 왜

이걸 만들었고 어떻게 성취해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개별 전시물을 나열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중국이나 세계의 문명 과학기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문화와 땅, 사람에 맞게 독자적으로 소화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왜 지금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에 대해 그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과천과학관은 지난 10년 동안 전시 교육 과학문화 활동에서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1년에 전시관으로만 120만명이 올 정도로 즐겨 찾는 장소가 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람객만의 양적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지요. 변화를 주지 않으면 몇 년 뒤에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운 이론을 세우고 실험해서 검증하는 것이 과학이다. 그런 ‘과학’을 다루는 과천과학관의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배재웅 관장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즐거운 변화를 기대해 본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배재웅 국립과천과학관장은...
배재웅 국립과천과학관장은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와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 석사를 졸업했다. 기술고시(2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문화과장 ▲문화관광부 문화기술과장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장 ▲원자력안전과장 ▲미래부 연구성과정책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제6대 국립과천과학관장으로 취임하였다.

‘통일농구’ 선수단 평양 도착... 허재 “선수 때보다 설레”

남북 통일농구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 101명이 군수송기 2대에 나눠 타고 지난 3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방북단은 국가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한 남녀 농구선수단 50명과 정부대표단 5명, 정부지원단 15명, 취재기자단 10명, 중계방송팀 20명, 장내 아나운서 1명 등 모두 101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대표단은 조 장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안문현 총리실 국장,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이다.

선수로 찾았던 평양을 감독으로 다시 방문하는 허재 남자 농구대표팀 감독은 “선수 때보다 더 설레다”며 벅찬 마음을 표현했다.

허 감독은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교류경기를 하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틀 계기로 남북 관계가 점차 좋아져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류전을 북측이나 남측에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교류경기를 하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틀 계기로 남북 관계가 점차 좋아져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류전을 북측이나 남측에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CGV, 베트남서 최단기간 1000만 관객 돌파

CJ CGV가 2011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누적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CJ CGV는 지난 달 29일 베트남에서 2018년 누적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에 누적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베트남 진출 이후 처음이다. CJ CGV는 2015년 12월 베트남에서 최초로 1000만 관객 기록을 세운 후 2016년 9월, 2017년 8월에 각각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매년 달성 시기를 앞당겨 올해는 상반기인 6월에 성과를 얻었다. 특히 2015년 한 해 관람객이 1000만 여명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3년만에 2배 성장한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CJ CGV 베트남 상반기 매출액은 2015년 연간 매출액 1조4000억 베트남 동(한화 약 74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의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0개에 불과했던 베트남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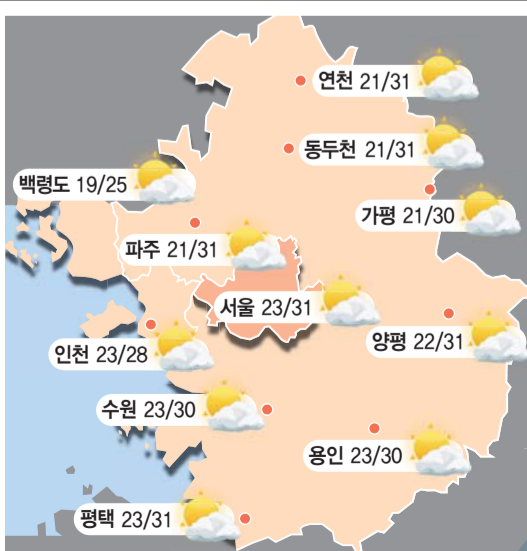
체 CGV 극장 수는 3년만에 57개까지 대폭 늘었다. 이러한 성장세로 CJ CGV는 올해 베트남에서 연간 매출액 3조8000억 베트남 동(한화 약 1900억 원), 70개 극장 운영을 목표로 하며 2015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 CGV는 베트남 성장세에 발맞춰 차별화된 멤버십 서비스, 관객 지면 확대 위한 다양한 영화 편성, 베트남 청년 및 지역민 대상 사회공헌활동 등을 펼쳐왔다.

베트남 전체 인구의 약 40%가 24세 이하의 청년이라는 점을 토대로 CJ CGV는 업계 최초로 지난해 9월 만 22세 이하의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U22’ 멤버십을 론칭했다. ‘U22’ 멤버십은 고객들이 영화 관람 및 매점 메뉴 할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매년 증가하는 VIP 회원들을 위해 올해부터 VIP 멤버십 단위를 세분화하고, 프리미어 시사회 초대 등의 특별한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다.

/신원식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연합뉴스

시민 10명 중 7명 “노력해도 사회적지위 안 높아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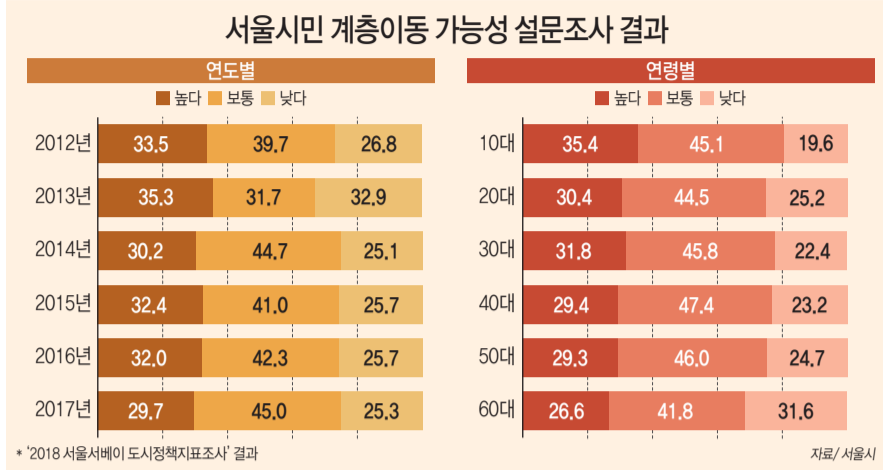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계층이동 가능성 3년 간 하향세
행복도 6.96점... 소득 높을수록 ↑
월세비중 높아지고 30대가 '1위'
부부가구 가사노동 58% '아내 몫'
젊은층 가사분담·다문화인식 높아

서울시민 중 29.7%만이 '스스로 노력하면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3년 동안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남녀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은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민의 주택 점유형태는 10년 전에 비해 자가 비율이 줄고, 월세 비중은 증가했다. 반려동물은 서울 5가구 중 1가구가 키우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민 전체 10명 중 8명은 '서울이 고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는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지난 2003년 첫 조사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올해 15회를 맞았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



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9월 한달 간 서울시내 2만가구(15세 이상 4만2687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거주 외국인 관련 조사결과는 추후 발표된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내가 노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은 29.7%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6년엔 32.0%, 2015년엔 32.4%였던 것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같은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비율이 10대가 35.4%, 20대 30.4%, 30대 31.8%, 40대 29.4% 등 30%내외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46.6%에서 44.1%로 떨어진 형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세대별로도 모두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는 비율이 많지 않고, 저소득층일 경우 더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대균 서울시정보기획관은 "시 차원에서 그동안 창업 지원 등 계층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교육이라던지 다른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더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남녀가사분담에 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은 세대 간에 차이를 보였다. 남녀가사분담과 관련해, 전체 서울시민 가운데 부부가구의 가사노동 주 책임은 여전히 아내 몫이라는 생각이 5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0대 23.1%, 50대 28.9%, 60대 35.6%로 나타났다. 하지만 30대에서는 15.0%에 불과해 연령별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여성 2명 중 한 명은 '거의 매일' 집안청소를 하며, 여성 3명 중 한 명은 '거의 매일'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등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몫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역할은 경제활동, 아내의 역할은 가정 돌봄'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남성 5.15점, 여성 4.98점으로 동의를 해,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인구의 15.3%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 31.9%는 X세대(1964년~1980년생), 28.7%는 밀레니엄세대(1981년~1997년생)가 차지하고 있다.

이 중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력이 높게 나타났다.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외국인 이민 정책'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는 '외국인 이민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민자들에 의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번 서베이 조사결과, 10가구 중 4가구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월세가 31.2%, 전세는 26.2% 순이었다. 다만 지난 10여년간 주택자기비율은

2.5%포인트 줄고, 월세 비율은 10.6% 포인트 높아졌다. 30대 가구주는 월세비율이 43.5%로 40~60대가 20%대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0년 후 희망하는 주거형태는 62.9%가 아파트, 22.8%가 단독주택을 희망했다.

서울시민의 주관적 행복도는 지난해 10점 만점에 6.96점으로 지난해 6.97점보다 소폭 낮아졌다.

행복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의 밀레니엄 세대 중 42.7%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기 이후에도 독립하지 않은 캣루족 현상이 뚜렷했다. 젊은 세대 가운데 서울 출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서울이 고향'이라는 인식이 10명 중 8명 꼴로 나타났다. 또 현재 서울시민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다.

2016년 정부 통계의 센서스 기준 1~2인가구는 서울에서 54.7%, 1인가구 비율은 30.1%로 발표된 바 있다. 1인가구비율이 높은 자치구로는 관악구(45.1%), 중구(38.2%) 등이 있다. 2인가구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500만원이 21.1%로 가장 높았고, 300만~400만원이 20.2%, 500만~600만원이 16.6% 순이었다. 2인가구 이상 중 200만원 미만 소득은 10%였지만, 1인가구는 전체 45%를 차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지하철서 깜빡 졸아도 도착역 안 놓쳐요”

서울시 '도착역 알림서비스' 도입 하차 전 푸시알람·진동으로 알림

서울시가 앱에서 지하철 도착역을 설정해두면 도착 직전 푸시알람이나 진동으로 알려주는 '도착역 알림서비스'를 출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착역 알림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해 이달부터 지하철 2, 3, 4호선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하반기엔 1~8호선 모두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착역 알림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공사가 운영하는 '또타지하철' 앱에서 목적지를 클릭한 후 오른쪽 상단 중 모양을 누르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스타트업 사운드리의



기술력을 공사가 발굴해 지원, 상생 기술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결과다. 공사는 개발

환경을 제공해 사운드리가 보유한 음파통신 기술로 알림서비스를 구현했다. 사람이 듣지 못하는 초음파로 열차 도착 방송 내용을 앱에 보내고 스마트폰이 이를 수신해 알람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원리다. 방송 시점을 기준으로 한 알람이어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지난 3월 지하철 2호선에 도착역 알림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용객들의 서비스 확대 요청이 많아 도착역 지정·알림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지역을 늘리게 됐다"며 "지하철에서 졸아내릴 곳을 번번이 놓치는 승객부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느라 어디를 지나는지 깜박하는 시민, 청각장애인까지 지하철 내 방송을 미처 듣지 못해도 도착역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비 개인 하늘 '날씨 좋다'

장맛비가 그친 3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바라본 하늘이 맑다.

/연철뉴스

지역특성 반영 청년일자리 266개 창출

서울시-8개 자치구

서울시와 자치구 8곳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청년일자리 사업을 설계·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해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8개 자치구에서 17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266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

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이다. 참여 대상은 지역 내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이며, 모집 예정 기간은 7월 중순이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청년을 채용한 지역기업과 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용인원 1인당 최대 2년간 연 24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지역에 취업할 경우 연 10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공간,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최대 2년간 연 1500만원을 제공한다. 민간취업연계형은 공공·민간 기업이 청년을 채용, 업무 경험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1년 동안 관련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채용기업에 청년 한 명당 연 최대 2250만원을 지급한다.

/김현정 기자 hiki@

SH공사, 임대관리직원 384명 정규직 전환

노사 갈등 최소화 합의
조직화합 위한 발판 마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 임대주택관리직원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SH공사노동조합과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해 오던 384명의 임대주택관리직원에게 상호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원에 별도직군인 '주거복지직'으로 편입하기로 지난달 29일 노사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SH공사는 '임대주택관리직원의 '주거복지직' 편입 과정에서 직군간 전환 조건이나 직급 명칭 등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기존 일반직에 대한 근로조



건 침해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노사간에 상호 성실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노사합의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SH공사는 임대주택관리직원의 교섭대표노조인 SH공사통합노동조합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지난해 8월 30일)'의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관리직의 정규직

통합 조건을 둘러싸고 6개월 이상 팽팽한 협상을 벌였으며, 지난 21일 별도 직군인 '주거복지직'을 신설해 이곳으로의 편입을 합의한 바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두 차례의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직화합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찾음으로써 차후 공사가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며, 장래 공사는 상생과 협치의 노사관계 속에서 박원순 시장의 제3기 주거복지·도시재생 정책을 활기차게 선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금융]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비전 2030' "연1兆 이익 목표" 06



Life

[유통] 女心 이어 男心까지 '그루답터' 등장에 맨즈뷰티 뜬다 11



독립운동가 옥고 치른 붉은 옥사서 아픔 되새겨요

되살아나는 서울

20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서울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 끄트머리에는 한국 근·현대사 비극을 간직한 붉은 담벽의 옥사가 있다. 감옥은 1908년 일제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을 가두기 위해 세운 것으로 유관순 열사, 백범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가 이곳에서 옥고를 치렀다.

건립 당시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감옥은 증·개축을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이 3000명까지 늘어났다. 개소 이후 80년 동안 약 35만명을 수감한 감옥은 1987년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됐다.

서울시는 숭한 민족 수난사가 배어 있는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조성, 1998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문을 열었다.

◆독립운동가로 남은 친일 변절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전시관과 중앙사, 11·12 옥사, 여옥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달 10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다.

입구로 들어서자 과거 보안과 청사로 사용됐던 2층짜리 전시관 건물이 보였다. 관람 순서를 따라 가장 먼저 건물 2층 민족저항실로 올라갔다. 전시실에서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이날 역사관을 방문한 조길환(가명·56) 씨는 "왜 친일파 윤치호가 독립운동가로 나와 있는 거냐"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저런 잘못된 것들은 당장 치워야 한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윤치호는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



1 지난 6월 10일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옥사 내부를 관람하고 있다. 2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담벽에 걸린 태극기 앞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3 서대문형무소 전시관 지하 고문실에서 한 어린이가 수형도구 체험을 하고 있다. 4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여옥사 내부 시청각 자료에는 '독립의 꽃 여성독립운동가'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



독립운동가 감금했던 옥사 체험하고 배우는 박물관으로

친일 변절자·성차별 문구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 있어

명이 눈에 띄었다.

수형도구 체험을 한 이준우(12) 군은 "앞이 안 보여 답답하고 두려웠다"며 "저 시대에 태어났어도 무서워서 독립운동을 못했을 것 같다"며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고문실 한켠에는 관세 짝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벽에서 있는 관의 정체는 좁은 공간에 사람을 가둬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고통을 주는 고문 기구였다.

마포구 합정동에서 온 김성태(45) 씨는 "몸을 잔뜩 움크려 봤는데도 벽관에 들어갈 수 없어 포기하고 나왔다"며 "독립운동가들이 이 좁은데 갇혀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여성독립운동가는 독립의 꽃?

전시관 뒤쪽에는 방시형으로 뻗은 10·11·12 옥사와 연결된 중앙사가 있었다. 중앙사는 옥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다.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따라 중앙사 감시실로 이동했다. 중앙감시실에는 나무 상자처럼 생긴 간수 감시대가 있었다. 해설사는 "모두 감시대 위로 올라와 옥사를 둘러보라"고 말했다. 감시대에 올라서 자 일자로 길게 뻗은 옥사 전체가 한 눈에 들어

왔다.

해설사는 관람객들에게 "이제 감옥 안으로 들어가보라"고 권했다. 3평 남짓의 공간에 어른과 아이 20명 정도가 들어가자 감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온 김미경(53) 씨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 숨이 안 쉬어 졌다"면서 "일본이 여기에 30명을 가둬놨다고 들었는데, 오늘날이 습하고 더운 날은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역사관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 마지막 관람 장소인 여옥사에 도착했다. 여옥사는 미결수와 사형수 등을 가둔 장소로 1979년 철거됐다가 설계도면이 발견돼 지난 2011년 복원됐다.

여옥사를 방문한 김모(29) 씨는 "여옥사 안에 있는 시청각 자료에 '독립의 꽃 여성독립운동가'라는 문구가 매우 불쾌했다"면서 "남성독립운동가도 사람이 아닌 꽃으로 표현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여옥사 내의 또 다른 시청각 자료에서는 '고문을 당해 부은 얼굴로 찍힌 사진 때문에 유관순 열사가 부정적인 인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대체 누가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냐"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관계자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른 거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시와 자치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요소 등이 담긴 사례를 점검하는 시민 성평등 모니터링단을 운영, 점검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사진=김형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